

魏晉南北朝時代 幕府體制的 社會經濟的 基礎*

金 翰 奎

- | |
|---|
| I. 緒言
II. 府主의 社會經濟的 性格
III. 幕僚의 社會經濟的 性格
IV. 府主와 幕僚의 社會經濟的 關係
V. 結言 |
|---|

I. 緒 言

이미 여러 차례의 기회를 통해 논증한 바와 같이, 漢代 및 魏晉南北朝時代에 지속적으로 존속하였던 幕府體制는 일정한 제도적 형식을 갖춘 政治體制의 한 양식이었다. 그러나 정치권력이란 외형적으로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 규정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非制度的인 기반, 특히 사회경제적인 기초 위에서 존립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중국의 幕府體制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경제적 기초를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없다. 앞서 <漢代 幕府體制的 社會經濟的 基礎> (《中國學報》29, 1989)를 정리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中國古代史上에서 幕府體制는 漢代뿐만 아니라 魏晉南北朝時代에도 전개되었으며, 어떤 의미로는 魏晉南北朝時代에 가장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魏晉南北朝時代 幕府體

* 이 논문은 93년도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제의 社會經濟的 基礎'를 검토하는 과정을 빠뜨릴 수는 없다.

幕府體制는 어떠한 힘에 기초하여 성립, 유지될 수 있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준비되었던 前稿는 漢代 將軍 즉 府主들의 거대한 社會經濟的 力量에 대하여 특히 주목한 바 있다. 漢代의 幕府體制는 幕僚集團의 社會經濟的 力量보다는 府主의 그것에 힘입어 존속 혹은 강화된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漢代 府主의 社會經濟的 力量이 웅대하였던 것은 漢代 幕府의 府主가 대부분 輔政將軍이었기 때문이다. 輔政이란 一人 혹은 소수의 將軍이 皇帝를 대신하여 國家權力을 일시 장악하는 정치적 과정을 가리킨다.¹⁾ 이 경우 국가권력은 皇帝로부터 將軍으로 일시 이동하였을 뿐, 복수로 分化된 것은 아니었다. 輔政將軍의 권력은 국가권력과 일치됨으로써, 輔政將軍의 幕府는 국가권력을 실현하는 특수한 政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²⁾ 따라서 漢代 幕府體制를 성립, 유지시켜주는 힘의 원천은 국가권력이었으며, 그 사회경제적 기초 역시 국가권력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러나 魏晉南北朝時代의 府主는 漢代의 그것과 성격을 달리하였다. 漢代 幕府의 府主가 대부분 輔政將軍이었다면, 魏晉南北朝時代 幕府의 府主 가운데는 方鎮將軍이 다수 포함되었다. 물론 魏晉南北朝時代가 끝날 때까지 輔政將軍의 幕府가 존속하였지만, 後漢末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方鎮將軍의 幕府가 幕府의 대부분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方鎮將軍이란 京師를 떠나 地方의 軍鎮 즉 方鎮에 出鎮한 將軍을 가리킨다. 따라서 方鎮將軍의 권력과 그것을 실현하는 幕府의 성격이 漢代 아래의 輔政將軍의 그것과 같을 것으로 유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方鎮將軍 權力的 성격이 輔政將軍의 그것과 같지 않았다면, 方鎮將

1) 金翰奎, <漢代 및 魏晉南北朝時代의 輔政> (《歷史學報》 137, 1993) 참조.

2) 金翰奎, <漢代 및 魏晉南北朝時代의 輔政體制> (《東洋史學研究》 44, 1993) 참조.

軍의 幕府를 성립, 유지시키는 사회경제적 기초 역시 같지 않았을 것이다.

幕府는 府主와 幕僚라는 두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魏晉南北朝時代 幕府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 府主와 幕僚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漢代 府主의 일반적 성격은 外戚이었고 幕僚의 사회경제적 성격은 文學之士였다. 그로 인해 漢代 幕府의 성격은 輔政機關의 그것을 띄고 있었다. 그러면 魏晉南北朝時代 府主와 幕僚의 사회경제적 성격은 어떠하였는가? 幕府體制는 府主와 幕僚의 결합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魏晉南北朝時代 幕府體制的 사회경제적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府主와 幕僚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漢代 府主와 幕僚의 결합관계는 기본적으로 심정적이고 비제도적인 결합관계였다. 그러면 魏晉南北朝時代 府主와 幕僚의 결합관계는 어떠하였나? 漢代 幕府將軍의 사회경제적 역량은 매우 웅대하였으며 그 幕府의 사회경제적 기초는 府主의 그것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러면 魏晉南北朝時代 幕府의 사회경제적 기초는 어디에 의존하고 있었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古代 中國 幕府體制的 사회경제적 역할과 그 존재의미에 대한 이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魏晉南北朝時代 幕府의 府主와 幕僚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그 상호 역학관계를 규명함으로써, 幕府體制에 제공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혹은 심리적 힘의 원천과 작용방향을 확인하여, 幕府體制的 사회경제적 기초와 그 성격을 이해하는데 편의를 얻고자 준비되었다.

II. 府主의 사회경제적 성격

古代 中國史를 서술한 正史類의 문헌에는 많은 將軍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 將軍들이 모두 幕府를 開設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府主란 幕府를 개설한 將軍 혹은 將軍처럼 幕府를 개설한 三公 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누가 府主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幕僚를 보유하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다행히 正史類에는 많은 幕僚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府主가 누구였는가를 明記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문헌에 등장하는 幕僚들의 府主를 통계처리하면, 어느 將軍이 幕府를 개설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將軍이 얼마나 많은 幕僚들과 얼마만한 규모의 幕府를 보유하고었는지를 알 수 있다. 모든 府主들을 모두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서 幕府의 규모, 즉 幕僚의 數에 있어 上位에 해당하는 將軍들을 찾아, 그 사회적, 경제적 성격을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사회 경제적 역량이 幕府의 구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魏晉南北朝時代를 주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논의의 단서를 찾기 위하여 漢代의 경우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漢書》百官公卿表에 기재된 역대 將軍職 役임자들의 인적사항을 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1-가> 《漢書》百官公卿表 所載 將軍의 社會經濟的 背景

時代	姓名	將軍號	幕僚	社會經濟的 背景	卷
文帝	薄昭	車騎將軍		高祖薄姬(文帝母)弟,	97
	宋昌	衛將軍		文帝代國郎中令, 領南北軍	4
景帝	竇嬰	大將軍		孝文皇后從兄子, 游士賓客, 吳楚	53
武帝	韓安國	將軍		梁國將, 御史大夫, 護軍將軍	52
	衛青	大司馬大將軍	2	武帝衛皇后兄, 匈奴, 大司馬	55
	霍去病	驃騎將軍	1	武帝霍皇后姊子, 匈奴, 大司馬	55
	霍光	大將軍	8	霍去病弟, 遺詔輔政, 大司馬	68
	金日磾	車騎將軍	(2)	匈奴休屠王太子, 輔政	68

時代	姓名	將軍號	幕僚	社會經濟的背景	卷
昭帝	上官傑	左將軍	(2)	昭帝上官皇后祖父，輔政	97
	上官安	車騎將軍		上官傑子，昭帝皇后父，爭權	97
	王莽	右將軍	(2)	衛尉	68
	張安世	右，車騎，衛將軍		御史大夫馮子，輔政宿衛	59
	范明友	度遠將軍	(2)	霍光女婿，中郎將，擊烏桓	69
	田廣明	祁連將軍		御史大夫，擊武都反氏	18
宣帝	趙充國	後將軍		六郡良家子，蒲類將軍，征匈奴	69
	韓增	前，車騎將軍	2	遊擊將軍說子，征匈奴，領尚書事	33
	霍禹	右，大將軍		霍光子，大司馬	68
	許延壽	強弩，車騎將軍	1	宣帝許皇后父弟，輔政	97
	常惠	右將軍		家貧，使匈奴，護烏孫，典屬國	70
	史高	車騎將軍	1	宣帝祖母兄子，輔政，領尚書事	97
	蕭望之	前將軍		田業，儒者，輔政，領尚書事	78
	許嘉	左，車騎將軍		宣帝皇后父弟(許延壽)子，大司馬	97
	馮奉世	右，左將軍		良家子，典屬國，光祿勳，將兵	79
	任千秋	奮武，右，左將軍	1	九卿子，太常，奮威將軍，將兵	79
成帝	王接	車騎將軍		宣帝母兄(無故)子，大司馬	97
	王商	右，左將軍	1	宣帝母兄(武)子，輔政	82
	王鳳	大將軍	9	元帝皇后兄，大司馬，領尚書事	98
	王商	衛，大將軍	4	元帝皇后弟，大司馬，輔政	98
	史丹	右，左將軍		史高子，皇考外屬，長樂衛尉	82
	師丹	左，大司馬		孝廉，博士，太子太傅，領尚書事	86
	王章	右將軍		太僕，光祿勳，列侯	97
	王音	車騎將軍	3	元帝皇后弟，大司馬，輔政	98
	辛慶忌	右，左將軍		父任，諸吏散騎給事中，虎臣	69
	韓勳	右將軍		執金吾，光祿勳	19
	廉褒	右將軍		執金吾，定冊參與	81
	尹岑	右將軍		執金吾	19
	王根	驃騎將軍	2	元帝皇后弟，大司馬，輔政	98
	朱博	後將軍		家貧，武吏，賓客	83
	孔光	左將軍		孔子後，儒者，領尚書事	81
	哀帝	王咸	右，左將軍		(宣帝后兄舜子)王章從弟
王莽		大司馬	4	元帝皇后弟子，輔政	99
彭宣		右，左將軍		博士，光祿勳	71
傅喜		右，大司馬		哀帝傅太后父弟子	82
丁明		衛，驃騎將軍	1	哀帝母丁太后兄，大司馬，輔政	97
丁望		左將軍		哀帝母丁太后叔父	97
公孫祿		右，左將軍		執金吾	86
嬌望	右將軍		執金吾	19	

時代	姓名	將軍號	幕僚	社會經濟的背景	卷
平帝	王安	右將軍	1	諸吏散騎光祿大夫	19
	傅晏	衛將軍		傅太后父弟子, 后父, 大司馬	97
	何武	前將軍		賢良方正, 御史大夫	86
	左咸	復土將軍		左馮翊	19
	耿豐	復土將軍	1	少府	19
	韋賞	車騎將軍		太守子, 明詩, 太傅, 大司馬	73
	董賢	衛, 大司馬	1	父任, 大司馬, 領尚書事	93
	王舜	車騎, 太保		王莽從弟, 大司馬, 王莽心腹	99
	王崇	右將軍	1	御史大夫子, 衛尉	72
	馬宮	右, 大司馬		射策, 光祿勳	81
	孫建	右, 左將軍	1	瓜牙, 強弩將軍, 執金吾	18
	甄豐	右, 左將軍		主擊斷, 宿衛, 光祿勳	18
	甄邯	右將軍	1	孔光女婿, 擊斷, 宿衛, 光祿勳	18
	王駿	步兵將軍		執金吾	19

위의 表에 의하면, 《漢書》百官公卿表에는 西漢時代의 將軍들 가운데서 주로 大將軍, 驃騎將軍, 車騎將軍, 衛將軍, 左將軍, 右將軍, 前將軍, 後將軍 등 만이 기재되었다. 그 까닭은, 비록 百官公卿表에서 將軍은 '不常置'라 하였지만, 위의 將軍職들은 사실상 常置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不常置'하여 百官公卿表에 기재되지 못한 將軍들 가운데서도, 幕府를 열어 幕僚를 보유한 경우가 있었다.³⁾ 그러나 武帝時代 이후 前漢의 將軍들은 위의 表에서 대부분 망라되었다. 즉 武帝時代까지는 將軍이 대체로 常置되지 않았으나, 武帝時代 이후 부터는 將軍의 대부분이 사실상 常置되었다. 특히 大將軍과 驃騎將軍, 車騎將軍, 衛將軍, 左將軍, 右將軍 등을 역임한 인물이 51인으로 전체 60인의 85%를 차지하고, 이들의 대부분이 宿衛와 領尚書事 혹은 輔政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즉 大將軍과 驃騎將軍, 車騎將軍, 衛將軍 등은 항상 輔政 담당자에게 위임되었고 左, 右將軍은

3) 貳師將軍 李廣利, 伏波將軍 路博德, 樓船將軍 楊僕 등의 幕僚 1인씩 《漢書》에서 발견된다.

宿衛의 책임자에게 위임되었다. 前漢時代에는 輔政이 거의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宿衛 역시 중단할 수 없는 요직이기 때문에, 이들 將軍職들은 사실상 常置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表에서 集算된 60인 將軍들의 역할을 분석하면, 10여명이 領軍하여 出戰하였고, 20여명이 領尙書事 등으로 輔政하였으며, 나머지 30여명이 宿衛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宿衛도 領兵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 실질적 기능은 輔政과 같이 국가권력의 실현에 동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宿衛 역시 輔政을 구성하는 한 양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武帝時代 이후 前漢의 將軍은 野戰軍司令官이라는 將軍 본래의 직무를 떠나, 京師에 常駐하면서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國家權力을 專斷할 수 있는 인물에게 주어진 직책이었다.

武帝 이후 前漢 將軍의 성격이 정치적이었던 만큼, 그 幕府의 성격도 정치적 성격이 강하였다. 위의 表에서 볼 수 있듯이, 前漢의 將軍들 가운데서 그 幕僚의 姓名이 《漢書》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將軍들은 이른바 輔政將軍이었다. 즉 前漢時代에는 輔政將軍의 幕府가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聲名이 높았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수의 幕僚가 역사에 그 姓名을 남기고 있는 王鳳과 그 兄弟, 조카 등은 모두 前漢時代의 저명한 輔政將軍이었고, 두번째로 많은 幕僚의 이름을 남기고 있는 霍光은 첫번째 輔政將軍이자 가장 전형적인 輔政將軍이었다. 이처럼 輔政將軍들의 幕僚들이 史書에 이름을 많이 남긴 까닭은 前漢時代 幕府가 輔政과 같은 정치적 과정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前漢 將軍들이 將軍職에 임명된 배경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위의 表에 의하면, 武將 출신으로 武功을 쌓아 자연스럽게 將軍職에 오른 인물은 10여인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外戚으로서 輔政하기 위해 將軍職을 받은 인물이 22인이나 되었고, 武官 출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三公九卿 등 고급 관료직을 경유하면서 확보한 정치적 기반을 배경으로 將軍職을 拜受한 인물이 26인이나 되었다. 특히 史書를 통해 姓名과 활동상이 알려지고 있는 前漢 幕僚들의 대부분이 바로 外戚으로 輔政하기 위해 將軍職을 취한 인물들의 幕僚였음은 前漢時代 幕府가 정치적 성격이 강하였음을 명증한다고 하겠다.

輔政이란 皇帝 대신 將軍이 國家權力을 專斷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輔政將軍의 권력은 논리상 국가권력과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輔政將軍의 幕府는 국가권력을 실현하는 제 3의 政府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그 당연한 결과로서 輔政將軍의 幕府를 유지 혹은 강화하게 하는 힘은 국가로부터 제공되었다. 물론 府主의 사회경제적 역량도 幕府의 성립과 유지에 적지않게 작용하였을 것이나, 바로 그 府主의 사회경제적 역량조차도 前漢時代에는 國家와 皇帝權力에 의해 조성되었다. 輔政將軍들이 國家와 皇帝로부터 막대한 財貨와 食邑을 下賜받았음은 이미 前稿에서 살핀 바 있다. 이에 반해, 輔政將軍의 幕僚들은 文學의 기능이나 政策의 謀議 등 知的 능력이 기대되었을 뿐, 그 사회경제적 역량이 기대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前漢時代의 幕府는 府主의 힘, 궁극적으로는 國家權力이나 皇帝權力에 의존하여 존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後漢時代의 幕府는 어떤 힘에 의존하여 존립하였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後漢代의 將軍과 幕僚들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좋겠지만, 특히 《後漢書》 이후의 史書에는 百官公卿表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後漢書》에 기재된 幕僚들을 통해 그 府主들을 逆으로 추적함으로써, 後漢代의 대표적인 幕府의 府主와 幕僚들을 설정하고 그 사회경제적 역량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幕僚의 數, 즉 幕府의 규모에 따라 府主를 열거하고 그 사회경제적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의 表와 같다.

<表1-나> 《後漢書》所載 府主의 社會經濟的 背景

數	姓名	將軍號	職任	社會經濟的 背景	卷
18	竇憲	大將軍	出鎮 輔政	竇融孫, 皇后兄, 位次太傅下三公上	23
13	何進	大將軍	將兵 輔政	靈帝皇后兄, 貧賤, 錄尚書事	69
11	梁商	大將軍	輔政	順帝皇后父, 外戚, 特進	34
10	東平王蒼	驃騎	輔政	明帝親弟, 至親, 位在三公上	42
9	曹操	丞相等	出鎮 輔政	中常侍騰孫, 太尉嵩子, 任俠	
9	鄧鸞	車騎	將兵 輔政	太傅禹孫, 和熹皇后兄, 儀同三司	16
7	梁冀	大將軍	輔政	梁商子, 貴戚, 錄尚書事	34
5	竇武	大將軍	輔政	竇融玄孫, 教授, 和帝皇后父, 多辟名士	69
4	鄧禹	前將軍	將兵	能訟詩 受業長安, 光武帝麾下	16
4	竇融	河西大	將兵	任俠, 豪傑, 行河西五郡大將軍事	23
4	張溫	車騎	出征	列侯, 司空	36
4	馬防	車騎	將兵 出征	馬援子, 城門校尉	24
4	袁紹	大將軍	出鎮 輔政	司徒湯孫, 門生故吏, 豪傑, 袁氏四世樹恩	74
2	閔顯	車騎	輔政	安帝皇后兄, 大鴻臚, 定策禁中	5
2	何熙	車騎	將兵	御史中丞, 司隸校尉, 大司農	47
2	馮昆	車騎	將兵	刺史煥子, 家富好施, 地節督揚州諸郡軍事	38

위의 表에 의하면, 後漢代 將軍들 가운데서 2인 이상의 幕僚가 《後漢書》에 기재된 경우가 모두 16件인데, 이들의 대부분이 大將軍 혹은 車騎將軍이었으며, 4인 이상 幕僚의 幕府를 보유하고 있었던 저명한 將軍의 대부분이 輔政將軍이었다. 將兵 혹은 出征 出鎮에만 전념한 將軍의 幕府도 다수 존재하였지만, 幕府의 규모나 聲名에 있어서는 輔政將軍의 그것에 훨씬 뒤떨어졌다. 後漢代의 幕府 역시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8인이 外戚 혹은 至親으로 將軍이 되었음도 前漢代의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後漢代에 관한 위의 表에서 前漢代의 그것과 다른 점을 일부 발견할 수도 있다. 그 하나는 非將軍幕府의 출현이다. 後漢末의 曹操가 丞相으로 대규모 幕府를 보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漢代에서는 유일한 예이지만, 그 이후의 역사에서는 흔하게 발견되는 것

이다. 또 다른 점은 後漢代의 將軍들 가운데는 名門子弟 혹은 豪傑勢力 등 강력한 사회적 기반을 가진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4代에 걸쳐 막대한 門生故吏들을 배출한 袁紹의 집안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袁紹는 將軍으로 스스로 幕府를 열기전에, “袁氏는 여러 代에 걸쳐 寵貴하여 海內가 歸服한다”(《後漢書》 69)는 이유로 大將軍 何進의 幕僚로 辟召된 바도 있었다. 이 역시 後漢末부터 나타나서 魏晉南北朝時代를 통해 일반화한 현상이다. 요컨대 後漢代의 幕府도 前漢代의 그것과 다름없이 국가권력이나 皇帝권력에 의존하여 존립하였지만, 그 말기에 이르러 사회경제적으로 자립성이 높은 幕府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은 三國時代로 직접 연결되었다. 《三國志》에 기재된 幕僚의 數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幕府의 府主를 정리한 다음의 表가 이를 잘 보여준다.

<표1-다> 《三國志》所載 府主의 社會經濟的 背景

數	姓名	將軍號	職任	社會經濟的 背景과 兼職	卷
96	曹操	丞相等	出鎮 輔政	中常侍騰孫, 太尉嵩子, 任俠, 州牧	1
36	諸葛亮	丞相	出鎮 輔政	郡丞子, 太守從子, 躬耕, 州牧, 錄尚書事	35
30	孫權	車騎等	出鎮	豪傑孫堅子, 孫策弟, 州牧	47
15	劉備	左等	出鎮	漢景帝子後, 世仕州郡, 豪俠, 州牧	32
12	曹丕	五官將	輔政	曹操嗣子, 副丞相	2
7	鍾會	鎮西	出鎮	太傅鍾繇子, 都督關中諸軍事	28
3	孫策	討逆等	出鎮	豪傑孫堅長子, 太守	46
3	曹爽	大將軍	出鎮 輔政	(曹操族子)大將軍真子, 都督中外, 錄尚書事	9
3	曹洪	都護等	出鎮	曹操從弟,	9
2	孫堅	破虜等	出鎮	孫武後, 縣吏, 豪傑, 刺史	46
2	司馬懿	太尉等	出鎮 輔政	征西高孫, 京兆尹子, 都督中外, 錄尚書事	
2	蔣琬	大將軍	輔政	州吏, 名士, 錄尚書事	44
2	曹仁	征南	出鎮	曹操從弟, 豪傑少年	9
2	諸葛誕	征東大	出鎮	漢司隸諸葛豐後, 都督	28
2	王基	征東	出鎮	郡吏, 孝廉, 都督	27

위의 表에는 《三國志》에 기재된 幕僚 2인 이상의 府主將軍 15인이 정리되었다. 이 表에는 漢代의 그것과 다른 점이 많이 발견된다. 우선 漢代에는 大將軍과 驃騎 車騎 衛 前後左右 將軍 등 만이 名府를 운영하였으나, 漢末과 三國時代에는 征鎮 등 새로운 將軍名과 丞相 太尉 등 相公의 幕府가 다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將軍制의 발달과 幕府制의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적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새로운 점은 고급 장군들의 職任이 輔政에서 出鎮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물론 輔政의 역할도 여전히 將軍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장군들은 出鎮하였고, 輔政한 장군들도 出鎮한 상태에서 輔政하였다. 요컨대 漢末 三國時代의 將軍들은 대부분 地方에 세력기반을 둔 이른바 '地方勢力'이었던 것이다. 이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將軍 재직시의 兼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위의 表에서 보듯이, 이들 將軍들의 대부분이 고급관료나 名門의 子弟, 혹은 지방 豪傑의 자제였으며, 이들이 將軍으로 재직할 당시에 州牧이나 州刺史 혹은 都督 등의 직책을 겸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漢末 三國時代 將軍幕府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매우 자립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晉代의 幕府는 어떠한 將軍들에 의해 운영되었는가? 《晉書》에 기재된 幕僚 5인 이상의 府主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1-라> 《晉書》 所載 府主의 社會經濟的 背景

數	姓名	將軍號	職任	社會經濟的 背景	卷
80	琅邪王睿	丞相等	出鎮輔政	宣帝曾孫,琅邪王觀子,大都督中外諸軍事	6
55	東海王越	太傅等	出鎮輔政	高密王泰次子, (爲中外所宗), 州牧	59

數	姓名	將軍號	織任	社會經濟的 背景	卷
46	桓溫	大司馬	出鎮輔政	桓榮後，名士，駙馬，都督中外，錄尚書事	98
44	王敦	大將軍	出鎮	琅邪王氏，王導從兄，駙馬，州牧，都督	98
29	王導	司徒等	輔政	光祿大夫覽孫，太保祥弟子，中外，錄尚書	65
28	成都王穎	大將軍	出鎮輔政	武帝第16子，都督中外，錄尚書事	59
27	齊王冏	大司馬	出鎮輔政	齊王攸子，九錫	59
21	司馬昭	相國等	輔政	司馬懿子，司馬師親弟，都督中外	2
20	會稽王昱	撫軍大	輔政	元帝少子，清談，錄尚書六條事	9
18	陶侃	征西大	出鎮	吳揚武將軍子，孤貧，孝廉，都督，刺史	66
16	郗鑾	司空等	出鎮	漢御史大夫廡玄孫，孤貧，賢良，都督 刺史	67
16	趙王倫	相國等	輔政	宣帝第9子，都督中外	59
14	桓玄	丞相等	出鎮輔政	桓溫子，州牧，都督中外，錄尚書事	99
12	庾亮	征西等	出鎮輔政	明穆皇后兄，清談，都督 刺史，錄尚書事	73
11	庾翼	安西等	出鎮	庾亮弟，帝舅，都督 刺史	73
10	劉琨	大將軍	出鎮	漢中山王勝後，光祿大夫子，雄豪著名，都督	62
10	會稽道子	驃騎等	輔政	簡文帝子，孝武帝親弟，錄尚書事，中外都督	64
10	長沙王乂	驃騎等	(輔政)	武帝6子，名譽，開府	59
9	河間王顥	太宰等	出鎮輔政	太原王瓌子，清名，大都督，州牧	59
9	劉弘	鎮南等	出鎮	魏刺史孫，鎮北將軍子，都督，刺史	66
9	何充	驃騎等	出鎮輔政	刺史孫，明穆皇后妹夫，都督 刺史 錄尚書	77
8	甘卓	鎮南大	出鎮	吳尚書孫，太子太傅子，都督，州牧	70
8	蘇峻	奮威等	出鎮	相子，單家，豪傑屯聚，內史	00
6	桓沖	車騎等	出鎮	桓溫弟，謙虛愛士，都督，刺史	74
6	劉牢之	鎮北等	出鎮	征虜將軍子，世為將勇稱，都督，內史	84
6	殷仲堪	冠軍等	出鎮	吏部尚書孫，清談，名士，都督，刺史	84
5	謝安	衛長軍	輔政	太常子，家門富貴，開府，錄尚書，大都督	79
5	謝玄	冠軍等	出鎮	謝安兄子，刺史子，都督，刺史	79
5	楊駿	太傅等	輔政	武悼皇后父，都督中外，錄尚書事	40
5	荀晞	征東大	出鎮	孤微，奴婢將千人，都督，刺史，開府	61
5	華軼	振衛等	出鎮	魏太尉欸曾孫，河南尹子，名士，監軍 刺史	61
5	會稽元顯	驃騎大	輔政	會稽王道子子，大都督，開府，錄尚書事	64
5	武陵王晞	太宰等	(輔政)	元帝子，	64
5	晉焦王承	南中郎	出鎮	宣帝弟孫，宗室，監軍，刺史	37
5	新蔡王騰	車騎等	出鎮	高密王泰子，宗室，都督，刺史	37

위의 表에서 볼 수 있듯이, 晉代에는 將軍의 名號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져, 將軍制의 발달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輔政將軍에 비해 보다 많은 將軍들이 出鎮하고 있었던 양상을 一瞥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刺史와 都督某州諸軍事의 직책을 겸함으로써, 자립성 높은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지방의 名門大族의 출신이나 지방 豪族의 子弟로서 지방에 강력한 세력기반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漢末이나 三國時代 때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晉代에 이르러 매우 현저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는 幕僚 5인 이상 幕府 府主만을 정리한 것이지만, 幕僚 4인 이하 幕府의 府主들도 그 사회경제적 성격은 대동소이하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幕府를 보유한 將軍들도 대부분 名門 출신의 名士이거나 지방 豪傑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漢末이나 三國時代부터 있어 온 것으로, 단지 晉代에 이르러 현저하게 발전된 양상이라 할 수 있을 뿐이다. 《晉書》에 이르러 비로소 발견되는 새로운 점은 대규모 幕府 府主 가운데에 諸侯王들이 다수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表에 열거된 35인 가운데서 11인이 親王 혹은 宗室의 諸侯王이었다. 이들은 다른 將軍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都督과 刺史를 겸하면서 지방에 出鎮하였다. 이 새로운 현상이 西晉의 5等爵制 復活에 따른 것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지만, 劉宋 이후 역대 南朝에 일반화된 양상의 하나로 발전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 한 예로서, 《宋書》에 기재된 幕僚를 통해 정리한 다음의 表를 통해, 南朝의 대규모 幕府의 대부분이 親王이나 宗室에 의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表1-마〉《宋書》所載 府主의 社會經濟의 背景

數	姓名	將軍號	職任	社會經濟의 背景 및 兼職	卷
189	劉裕	相國等	出鎮輔政	漢楚元王交後,太守孫,州牧	1
63	武陵王駿	安北等	出鎮	文帝3子, 都督, 刺史, 世祖(孝武帝)	6
50	竟陵王誕	驃騎等	出鎮	文帝6子, 都督, 刺史	79
50	彭城王義康	驃騎等	出鎮輔政	武帝4子, 少帝 文帝弟, 都督刺史 開府	68
38	江夏王義恭	撫軍等	出鎮輔政	武帝5子, 監軍, 刺史, 錄尚書事	61
30	始興王濬	後將軍等	出鎮	文帝2子, 元兇弟, 都督, 刺史	99
30	衡陽王義季	右將軍等	出鎮	武帝4子, 少帝 文帝弟, 都督, 刺史	61
28	謝晦	撫軍等	出鎮輔政	陳郡謝氏, 會稽王道子長史子, 都督刺史	44
27	晉安王子勛	鎮軍等	出鎮	孝武帝3子, 廢帝弟, 都督, 刺史	80
25	南郡王義宣	丞相等	出鎮輔政	武帝子, 都督, 刺史, 錄尚書事	68
25	沈攸之	車騎大等	出鎮	司空從父兄子, 征西長史子, 都督刺史	74
22	豫章公世子	?	?	少帝義符, 武帝長子	4
19	桂陽王義真	安西等	出鎮	武帝2子, 少帝弟, 都督, 刺史	61
18	長沙王道憐	驃騎等	出鎮	高祖中弟, 宗室, 都督, 刺史	51
15	南平王金樂	冠軍等	出鎮	文帝4子, 孝武帝弟, 都督, 刺史	72
15	西陽王子尚	撫軍等	出鎮	孝武帝2子, 廢帝弟, 都督, 刺史	80
15	山陽王休祐	驃騎大等	出鎮	文帝子, 都督, 刺史	72
13	宜都王義隆	鎮西等	出鎮	武帝3子, 都督, 刺史, 文帝(太祖)	5
12	建平王景素	鎮北等	出鎮	文帝孫, 建平王宏子, 都督, 刺史	72
12	湘東王彧	鎮北等	出鎮	文帝11子, 都督, 刺史, 明帝(太宗)	8
12	臨川王道規	征西等	出鎮	高祖少弟, 都督, 刺史, 開府	51
9	劉道濟	振武等	出鎮	征虜將軍孫, 刺史弟, 刺史	45
9	長沙王義欽	鎮軍等	出鎮	宗室長沙王道憐子, 都督, 刺史	51
9	臨川王義慶	平西等	出鎮	宗室臨川王道規子, 都督, 刺史	51
9	建安王休仁	司徒等	出鎮輔政	文帝12子, 都督, 刺史, 尚書令	72
9	海陵王休茂	左將軍等	出鎮	文帝14子, 都督, 刺史	79
8	尋陽王子房	右將軍等	出鎮	孝武帝6子, 都督, 刺史	80
8	王弘	司徒等	出鎮輔政	王導曾孫, 司徒子, 都督, 刺史, 錄尚書	42

위의 表는 《宋書》에 기재된 幕僚 8인 이상의 幕府를 운영한 府主 28인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점이 두가지 있다. 그 하나는 이들의 대부분이 都督과 刺史를 겸임하면서 지방에 出鎮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28인 중 23인이 皇帝의 親

子 혹은 宗室로서 王의 爵號를 받은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 두가지 현상은 이미 앞서 《晉書》에서도 나타난 바 있었지만, 《宋書》에서는 매우 지배적인 현상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宋朝의 저명한, 혹은 대규모의 幕府는 대부분 諸侯王이 出鎮하여 지방의 軍鎮에 세운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宋朝 이후의 역대 南朝에서 일반화하여, 《南齊書》 《梁書》 《陳書》 등에서도 거의 동일한 구조의 양상이 전개되었으므로, 南齊 梁 陳 등에 관한 별도의 논의는 생략한다.

그러면 北朝의 경우는 어떠한가? 먼저 《魏書》에 기재된 幕僚의 數를 기준으로 北魏의 주요 府主들을 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1-바> 《魏書》 所載 府主의 社會經濟的 背景

數	姓名	將軍號	職任	社會經濟的 背景	卷
15	高歡	大承相等	出鎮輔政	豪俠(結客), 天柱大將軍, 相國	
15	高澄	大承相等	輔政	高歡長子, 尙公主, 都督中外, 錄尙書事	
14	蕭寶夤	大將軍等	出鎮	南齊明帝6子, 尙公主, 都督, 刺史, 齊王	59
14	彭城王勰	中軍等	輔政	獻文帝子, 都督中外諸軍事, 錄尙書事	21
12	任城王澄	司空等	出鎮輔政	景穆帝孫, 任城王雲長子, 都督刺史, 尙書令	19
12	清河王懌	太尉等	輔政	孝文帝子, 清談, 侍中	22
9	京兆王愉	征東等	出鎮	孝文帝子, 賓客, 都督, 刺史, 皇帝	22
9	劉昶	大將軍等	出鎮	宋文帝9子, 尙公主, 都督, 刺史, 宋王	59
8	廣陵王羽	征東等	出鎮	獻文帝子, 都督, 刺史	21
7	趙郡王幹	征東大等	出鎮	獻文帝子, 都督, 州牧	21
6	高陽王雍	鎮北等	出鎮	獻文帝子, 都督, 刺史	21
6	中山王英	征南等	出鎮	景穆帝孫, 南安王楨子, 都督, 刺史	19
5	樂安王範	衛大等	出鎮	明元帝子, 都督, 開府, 鎮都大將	17
5	京兆王繼	大將軍等	出鎮輔政	南平王寶子, 元叉父, 都督刺史, 錄尙書	16
5	爾朱榮	大將軍等	出鎮輔政	世爲酋帥, 部曲義勇, 都督中外, 錄尙書事	74
5	李崇	驃騎大等	出鎮	文成元皇后兒子, 常養壯士, 大都督, 刺史	66
5	拓跋珪	?	出鎮	獻明帝子, 代王, 魏王, 魏帝	2

〈表1-사〉 《北齊書》 所載 府主의 社會經濟의 背景

數	姓名	將軍號	職任	社會經濟의 背景 및 兼職	卷
51	高歡	大丞相等	出鎮輔政	豪俠, 天柱大將軍, 相國	1
24	高澄	大丞相等	輔政	高歡嗣子, 尚公主, 都督中外, 錄尚書事	3
9	高洋	丞相等	輔政	高澄弟, 都督中外, 錄尚書事, 文宣帝	4
5	爾朱榮	大將軍等	出鎮輔政	世爲酋帥, 部曲義勇, 都督中外, 錄尚書事	74
5	常山王演	大丞相等	輔政	高歡6子, 文宣帝親弟, 都督中外, 錄尚書	6

〈表1-아〉 《周書》 所載 府主의 社會經濟의 背景

數	姓名	將軍號	職任	社會經濟의 背景 및 兼職	卷
76	宇文泰	丞相等	出鎮輔政	世爲大人, 豪傑, 都督中外, 錄尚書事	1
14	蕭循			宜豐侯	
10	賀拔岳	驃騎大等	出鎮	賀拔勝弟, 太尉允弟, 豪俠, 都督, 刺史, 開府	14
8	晉國公護	大將軍等	輔政	太祖兒子, 大家宰, 柱國大將軍	11
6	齊王憲	大將軍等	出鎮	太祖5子, 總管, 刺史, 大家宰	12
6	蕭寶衡	大將軍等	出鎮	南齊明帝6子, 尚公主, 都督, 刺史, 齊王	
5	尉遲迥	大將軍等	出鎮	代人, 太祖姉子, 尚公主, 大都督, 刺史	21

위의 表들에 의하면, 北朝에서도 諸侯王으로서 出鎮한 將軍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北朝의 名府 혹은 大府가 南朝의 경우처럼 오로지 諸侯王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爾朱榮과 高歡父子, 宇文泰父子 등 地方에 勢力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이른바 '地方勢力'들이 대규모의 名府를 다수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南朝의 皇帝子弟들이 다수 來降하여 대규모의 名府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특이하지만, 이들 역시 地方勢力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요컨대 北朝의 名府와 大府는 地方豪傑과 諸侯王 및 來降한 南朝貴戚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都督과 刺史로서 지방에 出鎮한 '地方勢力'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漢代 이후 魏晉南北朝時代의 규모가 크고 저명한 幕府가 누구에 의해 개설되었는가, 즉 大府와 名府의 府主가 누구였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漢代의 大府와 名府는 대부분 外戚에 의해 개설되었으며, 魏晉時代에는 地方豪傑들과 親王들에 의해, 南朝에서는 주로 諸侯王 즉 皇帝의 子弟들에 의해 운영되었고, 北朝의 幕府는 地方豪傑와 諸侯王 및 來降한 南朝의 親王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존재형태도 시대와 상황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였다. 漢代의 대표적 幕府將軍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錄尚書事 등의 형태로 輔政하였으나, 魏晉時代부터는 都督某州諸軍事와 州刺史로 出鎮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 輔政하여 국가권력을 專斷할지라도, 지방에 出鎮하여 輔政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魏晉時代와 南北朝時代의 名府 大府는 대부분 地方에서 개설되었고, 그 府主는 地方政府의 군사력과 행정력을 아울러 장악하였다. 비록 皇帝의 親子나 親弟일지라도, 지방에서 幕府를 열어 중앙정부에 대하여 자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諸侯王 府主도 지방세력의 한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III. 幕僚의 사회경제적 성격

幕府는 府主와 幕僚로써 구성되기 때문에, 幕府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府主뿐만 아니라 幕僚의 사회경제적 특성까지 아울러 검토해야 마땅하다. 魏晉南北朝時代 幕僚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대에 관한 사료에서 등장하는 모든 幕僚들을 분석해야 하겠지만, 《三國志》《晉書》《宋書》《南齊書》《梁書》《陳書》《魏書》《北齊書》《周書》 등에 記名된 幕僚數만 해도 연

인원이 모두 3천명이 훨씬 더 넘기 때문에,⁴⁾ 이들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득이 이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선택하여 분석의 대상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선택의 자의성을 가능한 한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가장 빈번하게 幕僚로 辟召된 인물들, 즉 府主들이 가장 幕僚로 삼고 싶어한 인물들이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 들은 당대에 가장 높은 명성을 떨쳤던 名府와 당대에 가장 많은 幕僚를 보유하고 있었던 大府를 찾아, 그 幕僚들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역시 매우 방만한 작업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범위를 더욱 축소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 후에서는 첫번째 방법으로, 魏晉南北朝의 시대적 성격이 가장 뚜렷한 晉代의 인물들 가운데서 3회 이상 幕僚로 辟召된 인물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두번째 방법을 위해서는, 東晉時代에 최고의 명성을 떨쳤던 몇몇 名府의 幕僚들과 南北朝 최고의 名府이자 최대의 大府인 劉裕幕府와 高歡幕府의 幕僚들을 분석하려 한다.

《晉書》에 立傳되어 그 사회경제적 성격에 대한 자료를 남기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3회 이상 辟召되어 幕僚로 활약한 인물들은 모두 83명이다.(辟召의 기준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不就’ 즉 辟召에 불응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연인원으로는 모두 325명이니, 1인당 평균 4회 정도씩 辟召된 셈이다. 《晉書》에 名記된 幕僚들이 연인원으로 모두 1289명으로서, 이들 325명을 제외한 964명은 대부분 1회 내지 2회 辟召된 경우다.

그러면 이들 3회 이상 辟召된 83명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처럼

4) 金翰奎, <漢代 및 魏晉南北朝時代의 輔政體制>(《東洋史研究》 44, 1993)의 <表 3> 참조.

빈번하게 辟召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많은 府主들이 이들을 辟召하여 幕僚로 삼음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은 무엇인가? 만약 이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곧 府主들이 幕僚들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漢代 幕府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幕僚들에게는 실무적 기능이 요구되었으나, 武帝時代 이후부터는 文學의 기능이 기대되었고, 後漢時代 부터는 점차 사회적 名望에 대한 기대가 첨가되어 갔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면 晉代 저명한 幕僚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공통된 기능은 무엇인가?

<表 2> 晉代 著名幕僚(3回以上 辟召된 幕僚 83人) 一覽表
(被召回數/名府/實就)

姓名	被召	本貫	家門背景 / 本人 能力
李意	8/4/4	上黨	父 漢大鴻臚 / 少有高行 博學研精
殷浩	8/4/5	陳郡	父 豫章太守 光祿勳 / 弱冠有美名 尤善玄言 爲風流談論者所宗
羊祜	7/2/1	泰山	世吏二千石, 祖 父 太守, 蔡邕外孫, 景獻皇后同產弟 / 博學能屬文
溫嶠	7/6/7	太原	漢護羌校尉序後, 曾祖 魏刺史, 祖 太守(兄弟六人並知於世), 司徒羨弟之子, 父...太守 / 有識良 博學能屬文 少以孝悌稱於邦族
刁協	7/7/7	渤海	祖 太守, 父 御史中丞 / 少好經籍 博聞強記
江彪	6/6/6	陳留	駱駝常侍江統子, 祖 曾祖 太守, 著作郎淳兒 / (文學之士)
祖逖	6/5/6	范陽	世吏二千石 爲北州舊姓, 父 太守 / 輕財好俠 鄉黨宗族以是重之
顧榮	6/6/6	吳國	祖 吳丞相, 父 太守, 南土著姓 /
范汪	6/5/6	南陽	刺史左將軍督係/少孤貧 無以資給 布衣蔬食...博學多通 善談名理
蔡謨	6/5/5	陳留	世爲著姓, 曾祖 魏尚書, 祖 太守, 父 爲邦族所敬 丞相掾 / 博學
孫盛	6/6/6	太原	祖 父 太守 / 博學 善言名理 知名...以家貧親老 求爲小邑
顧和	6/4/6	吳郡	侍中衆之族子, 曾祖 刺史, 祖 太守 / 族叔榮雅重之
阮籍	5/5/4	陳留	父 魏丞相掾 知名於世 / 博覽群籍 尤好老莊
阮裕	5/4/4	陳留	阮籍 族子, 刺史 阮放 弟 / 宏達不及放 而以德業知名
薛兼	5/5/5	丹陽	祖 吳尚書僕射, 父 有名吳朝 駱駝常侍/少與紀瞻等齊名 號爲五鶴
卞敦	5/4/4	濟陰	卞壺 從父兄, 父 以名理著稱 廷尉

姓名	被召	本貫	家門背景 / 本人能力
孫惠	5/3/5	吳國	吳豫章太守貴曾孫, 父祖竝仕吳/ 好學有才識
熊遠	5/5/5	豫章	祖...石崇蒼頭 而性廉直 有士風 免之/ 有志尚
王述	5/3/3	太原	昶曾孫, 洪孫, 承子/ 清貞簡貴 初家貧 求試宛陵令 頗受賂遺而修家具
王嶠	5/4/3	太原	承族子, 祖 魏尚書, 父 以才智稱 北軍中候/ 家貧 賜布百匹錢十萬
毛瓛	5/4/5	滎陽	刺史右將軍毛瓛之子, 將帥之家 /
江灌	5/3/5	陳留	江迪 從弟, 父 尚書郎 / 少知名 才識亞于迪
嵇含	5/5/5	譙國	魏中散大夫康從孫, 侍中紹從子, 祖 刺史, 父 太子舍人/ 好學能屬文
殷仲文	5/4/5	陳郡	南蠻校尉凱弟, 刺史仲堪從弟 / 善屬文 爲世所重
江迪	4/4/4	陳留	曾祖 太守, 祖 令, 父 安東參軍 / 獲當時之譽...以家貧求試守
何琦	4/4/0	廬江	司空何充從兄, 祖 後將軍, 父 內史/ 好古博學(孝友列傳)
荀邃	4/4/3	潁川	荀勗 孫, 尚書令 荀藩 長子 / (功臣子弟 名士 重臣)
荀組	4/3/4	潁川	荀勗 子, 荀藩 弟 / (功臣子弟 重臣)
盧志	4/3/4	范陽	盧欽 族子, 衛尉 盧瑱 子 /
盧諶	4/3/4	范陽	盧欽 族孫 盧瑒 親孫 盧志 長子/ 名家子 早有聲譽 才高行潔 善屬文
阮孚	4/2/4	陳留	阮籍 兄孫, 阮咸 子, 阮瞻 弟 / 蓬髮飲酒 不以王務嬰心
謝鯤	4/4/4	陳國	祖 典農中郎將, 父 以儒素顯 國子祭酒/ 少知名 通簡有高識 好老易
羊曼	4/3/3	泰山	太傅羊肸 兄孫, 父...太守 / 少知名...爲中興名士...號兗州八伯
束皙	4/4/3	陽平	祖...父...太守, 竝有名譽 / 博學多聞 與兄俱知名
孫楚	4/3/4	太原	祖資 魏驃騎將軍 父...太守 / 才藻卓絕...缺鄉曲之譽
劉琨	4/4/4	中山	漢中山王後, 祖散騎常侍, 父光祿大夫, 以雄豪著名 父兄皆有當世之望
王導	4/4/4	琅邪	光祿大夫覽之孫, 父...鎮軍司馬 /
王珣	4/3/4	琅邪	王導 孫, 領軍 中書令 王洽 子 /
郗鑿	4/3/3	高平	漢御史大夫慮玄孫/ 少孤貧 博覽經籍 以儒雅著名...在鄉里甚窮妥
紀瞻	4/3/4	丹陽	祖 吳尚書令, 父 光祿大夫 / 少以方直知名...好讀書
王承	4/2/4	太原	司徒王渾弟(內史洪)子/ 弱冠知名...自起至承 世有高名
桓戎	4/4/4	譙國	鎮南將軍宣子, 曾祖 太守, 祖 冠軍長史 / (入質)
劉胤	4/2/3	東萊	漢齊悼惠王肥後/ 交結時豪 名著海岱間 士咸慕之 大殖財貨商販百萬
毛穆之	4/3/4	滎陽	刺史毛寶子 / (武將)
徐廣	4/4/4	東莞	侍中貌弟, 祖率子弟并士庶千餘家南渡江, 世好學/ 百家數術無不研覽
謝沈	4/3/2	會稽	曾祖 吳豫章太守, 父 吳都尉 / 博學多識 耕耘之暇 研精墳籍

姓名	被召	本貫	家門背景 / 本人能力
魯芝	4/3/4	扶風	世有名德 為西州豪族 /
庾闡	4/4/3	潁川	祖 安北長史, 父 樂安長史 / (文苑列傳)
裴秀	3/2/3	河東	祖 漢尚書令, 父 魏尚書令, 叔父徽有盛名 賓客甚衆/少好學 能屬文漢
荀勗	3/2/3	潁川	司空爽曾孫, 祖 射聲校尉, 從外祖 鍾繇 / 能屬文
荀豈	3/2/3	潁川	荀勗 孫, 荀彧 弟 / (功臣子弟 名士)
山濤	3/3/3	河內	父 縣令, 濤早孤居貧 / 好老莊 每隱身自晦
王澄	3/3/3	琅邪	司徒王戎 從弟, 司徒王衍 親弟 /
郭象	3/1/3	河南	/ 好老莊 能清言
陸機	3/2/3	吳郡	祖 遜 吳丞相 父 抗 吳大司馬 / 文章冠世
江恂	3/2/3	陳留	江統 子, 江彪 弟 / 性好學 儒玄並綜
孫綽	3/3/3	太原	孫楚 孫, 孫統 弟 / 博學善屬文... 于時文士 綽為
周祀	3/3/3	義興	御史中丞處子, 祖 太守, 宗族強盛 人情所歸 帝疑憚之/名重一方
周札	3/3/2	義興	周祀 弟, 一門五侯 並居列位 吳士貴盛 莫與為比/少以豪右自處
周撫	3/3/3	廬江	安南將軍刺史 周訪 子 / (將軍 監督 刺史)
索林	3/1/3	敦煌	(名士)後將軍 索靖 子, 祖 太守, 累世官族 /
郝超	3/2/3	高平	鑿孫, 會稽內史愔子/善談論 積錢數十萬 性好施 一日中散與親故都盡
戴若思	3/3/3	廣陵	祖... 吳左將軍, 父... 會稽太守 / 少好遊俠
應詹	3/3/3	汝南	魏侍中據孫, 鎮南大 劉弘 詹祖舅/家富於財 弱冠知名 以學藝文章稱
卞壺	3/3/2	濟陰	祖 內史, 父粹為侍中 中書令 兄弟六人 並登宰府/弱冠有名譽 司克二州
鐘雅	3/3/3	潁川	父... 公府掾 早終 / 好學有才志
郭璞	3/3/3	河東	父以公方著稱 太守/ 好經術 博學有高才 詞賦為中興之冠
葛洪	3/2/3	丹陽	祖 吳大鴻臚, 父 太守/少好學 家貧 躬自伐薪以質紙筆 以儒學知名
荀羨	3/2/3	潁川	魏太尉或後, 錄尚書事 松子, 建威 蕤弟/生於積德之族 弱冠與王洽齊名
王舒	3/3/3	琅邪	丞相王導 王敦 從弟, 父 侍御史 / 不營當時名
王廙	3/2/3	琅邪	王導 從弟, 元帝 疎弟, 父 尚書郎 / 少能屬文 工書劃
顧業	3/3/3	吳郡	驃騎將軍業之族弟, 父 刺史 /
陸玩	3/3/2	吳郡	伯父 吳吏部尚書, 父 相, 機從弟, 錄尚書 曄弟/世不乏公 弱冠有美名
陶回	3/2/2	丹陽	祖 吳刺史, 父 太子中庶子 /
孔坦	3/2/3	會稽	尚書僕射愉從子, 祖 丹陽太守, 父 大司農/方直有雅望 通左傳解屬文

姓名	被召	本貫	家門背景 / 本人 能力
謝玄	3/2/2	陳國	太保安兄子, 安西將軍奕子 / 有經國才略
袁喬	3/1/2	陳郡	魏郎中令漢高孫, 散騎常侍懷子 /
劉殷	3/3/3	新興	高祖...漢光祿大夫 / 弱冠 博通經史...鄉黨親族莫不稱之
劉沈	3/3/3	燕國	世爲北州名族 / 博學好古 教儒道
杜夷	3/3/2	廬江	世以儒學稱 爲郡著姓/居甚貧窘 不營業..閉門教授 生徒千人
褚爽	3/2/3	河南	康獻皇后父, 祖 縣吏 家貧 安東將軍, 父 太守/名家子弟(外戚)
范粲	3/0/3	陳留	漢萊蕪長丹之孫 / (隱逸列傳)
韓桓	3/3/3	瀋津	父...以學行顯名 / 能屬文 博覽經籍

<表 2>에 정리된 83인은 3회 이상 辟召되고 《晉書》 列傳에 立傳된 인물들이다. 많은 경우 8회까지 辟召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평균 被召 횟수는 4.1회이고, 이른바 名府에 被召된 경우만 해도 평균 3.2회에 달한다. 辟召에 대한 應召의 평균 횟수는 3.6회다. 晉代에 幕僚로서 가장 인기있었던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출신지역은 대체로 西晉과 東晉의 중심부를 잇는 線上에 집중되었다. 陳留郡(9명), 潁川郡(7명), 琅邪郡(5명), 陳郡 陳國(5명), 河南郡(2명), 濟陰郡(2명), 泰山郡(2명), 滎陽郡(2명), 高平郡(2명), 譙國(2명) 등 河南 淮北 지역 출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吳郡 吳國(6명), 丹陽郡(4명), 廬江郡(3명), 義興郡(2명), 會稽郡(2명) 등 淮南 江南 지역과 太原(7명), 范陽(3명) 등 河北 지역 출신이 많았다. 요컨대 이들의 대부분은 山東과 江東地方 출신이었고, 중국의 서남 혹은 서북지역 출신자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의 출현지역이 이처럼 특정한 지역, 특히 太原-洛陽-潁川-陳留-焦國-琅邪-廬江-建康-吳-會稽 등을 남북으로 잇는 線上에 집중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晉代 당시의 정치적 군사적 주요 활동들이 이 곳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겠지만, 당대의 많은 名族들이 주로 이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도 그 이유의 하나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의 대부분이 太原王氏, 潁川荀氏, 陳留阮氏, 范陽盧氏, 譙國桓氏, 琅邪王氏, 義興周氏 등 이들 지역의 名門 출신이었고, 史書에 ‘著姓’ ‘舊姓’ ‘豪族’ ‘名族’의 子弟라고 明記된 경우도 적지 않다. 索綝은 ‘累世官族’(《晉書》卷 60)이라 하였고 祖逖은 “世吏二千石 爲北州舊姓”(62), 顧榮과 顧榮은 ‘南土著姓’(68)이라 하였다. 또한 荀羨은 ‘積德之族’(75)에서 태어났다고 하였고, 蔡謨는 “世爲著姓”(77), 劉沈은 “世爲北州名族”(89), 魯芝는 “世有名德爲西州豪族”(90), 杜夷도 “世以儒學稱 爲郡著姓”(91)이라 하였다. 사실 이들 가운데서 名家의 子弟가 아닌 인물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의 대부분은 二千石 이상의 高位官僚의 孫 혹은 子弟였으며, 이들 대부분의 父祖 혹은 兄弟들은 <<晉書>> 등 史書의 列傳에 입전된 당대 혹은 선대의 名士들이었다. (위의 表 家門背景 항목에서 ‘某孫’ 혹은 ‘某子’ ‘某弟’ ‘某族子’ 등으로 표기된 경우, 某는 모두 立傳된 인물들이다) 羊祜의 家門은 “世吏二千石 至祜九世 竝以清德聞”(34)이라 하였고, 周札집안은 “一門五侯 竝居列位”(58)하였으며, 陸玩은 자신의 가문에 대하여 “我家世不乏公”(77)이라 자랑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豪族의 성격을 띤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江南의 大族 義興周氏였다. 周玘는 “宗族이 强盛하여 人情이 돌아가는 바 되어(元)帝가 그를 의심하고 꺼려했다.”(58) 그의 嗣子 周緄이 吳人 세력을 결집하여 北來 士人 중심의 東晉정권에 저항하였을 때, 元帝는 “周氏가 奕世의 豪望이요 吳人의 所宗이라 하여 끝까지 그 죄를 추궁하지 않고 과거처럼 撫摩하였다.”(58) 周玘의 弟 周札도 “少年 때부터 豪右를 自處하였는데... 吳士 가운데서 이보다 더 貴盛한 자가 없었다.”(58) 즉

義興周氏は 東晉 정권이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강력한 地方勢力이었다. 劉琨도 “雄豪로서 著名하였고 그 父兄들도 모두 當世의 名望을 얻고 있었다.”(62) 이 외에도 豪族의 성격을 노출한 인물들이 다수 발견된다. 예컨대, 祖逖은 “대대로 二千石을 지낸 北州의 舊姓으로서 輕財 好俠하여...穀帛을 홀여 貧乏한 이들은 먹여살리니 鄉黨과 宗族이 그를 중하게 여겼다”(62)고 한다. 또한 裴秀의 “叔父 裴徽는 名望이 높고 賓客이 매우 많았다...裴王 二族은 魏晉之世에 크게 盛하였다”(35)고 한다. 劉胤은 “交結 당시의 豪俠들과 交結하여 名聲이 海岱之間에 떨쳐져 士들이 모두 그를 欽慕하였다...財貨를 크게 불러 百萬錢을 벌어들였다.”(81) 徐廣의 “祖父는 永嘉之亂을 만나 鄉人과 더불어 子弟들과 閭里의 士庶 千餘家를 이끌고 南으로 渡江 하였다”(82)고 하니, 이 역시 豪族의 배경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저명한 幕僚들이 모두 名族이나 豪族의 子弟들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 한 예로서 熊遠의 “祖父는 일찌기 남의 蒼頭가 되었으나 性品이 廉直하고 士風이 있어 蒼頭를 免할 수 있었다”(71)고 한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예를 제외한다면, 위의 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명한 幕僚의 대부분이 名族 혹은 豪族의 子弟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대부분이 名族 혹은 豪族 출신이라 하여, 이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강력한 기초를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杜夷는 “郡의 著姓이었으나 그 居處가 심히 貧窘하였다”(91)고 하며, 王述 王嶠 등은 비록 太原王氏의 名族 子弟였으나 본 근거지를 떠나 南渡해 온 입장이기 때문에 ‘家貧’하다는 이유로 王述은 “宛陵을 자원하여 賂遺를 받아 家具를 갖추 수 있었다”(75)고 하며, 王嶠는 “布百匹과 錢十萬을 下賜 받았다”(75)고 한다. 孫盛과 江逋도 ‘家貧’을 이유로 들어 地方官을 자칭한 바 있다.(82;83) 이들 외에도 范汪은 “少年에 孤貧하여 園中에

기거하면서 布衣 蔬食하였다”(75)고 하고, 郗鑒도 “少時에 孤貧하였으나 饋畝를 직접 경작하면서도 經籍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67)고 하며, 葛洪도 “少年에 好學하였으나 家貧하여 몸소 땀감을 만들어 紙筆과 바꾸었다”(72)고 하였다. 謝沈도 “耕耘 중에 틈을 내어 墳籍을 研究하였다.”(82) 이처럼 이들 저명한 幕僚들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은 名族은 곧 부유하다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저명 幕僚들의 일반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전체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몇가지 예외적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晉代에 빈번하게 幕僚로 辟召된 인물들은 대부분 名族이나 豪族의 子弟들이었으며, 적어도 고급관료를 代를 이어 배출한 집안의 자제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晉代의 府主들이 幕僚를 辟召한 기준, 즉 府主들이 幕僚에게 기대한 것은 幕僚의 家門的 背景이었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幕僚들에게 實務的 기능이나 文學的 기능을 기대한 漢代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면 晉代의 府主들은 자신의 幕僚들에게 家門的 배경, 즉 사회경제적 역량만을 기대한 것일까? 그러나 表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이 대부분 名家 豪族의 子弟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듯이, 이들의 대부분이 文學에 뛰어난 才能을 보인 저명한 ‘文學之士’였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束皙은 “博學多聞하여 兄과 더불어 이름이 알려졌다”(51)고 하고, 陸機는 “文章이 當世에 으뜸이었다”(54)고 하며, 孫綽는 “博學하고 文章을 잘 지어 당시의 文士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났다”(56)고 한다. 應詹도 “學藝와 文章으로 稱頌받았다”(70)하고, 郭璞은 “經術을 좋아하고 博學하여 高才를 갖추었으며...詞賦는 中興期の 으뜸이었다”(72)고 한다. 劉殷도 “弱冠에 經史

에 博通하여 鄉黨과 親族의 칭송을 받았다.”(88)

이처럼 위의 幕僚들에게서 볼 수 있는 文學의 기능은 구체적으로는 博學하다거나 文章 詩賦를 잘 짓는다거나 經術에 밝다는 등의 능력을 가리킨다. 그것은 漢代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晉代의 幕僚들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문학의 기능은 사뭇 독특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玄學에 대한 깊은 조예, 즉 名理를 논의하는 清談의 역량을 가리킨다. 表에서도 略記되어 있듯이, 이들의 다수가 老莊學에 탐닉하고 名理를 주제로 한 談論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山濤와 盧諶, 阮籍, 謝鯤 등은 老莊 혹은 老易을 좋아하고 三玄을 註解하였으며, 혹은 道家的 생활과 언동으로 타인의 주목을 받았다. 玄學에 대한 이들의 능력은 이른바 清談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郭象은 “老莊을 좋아하여 清言에 能하였다”(50)고 하고, 郗超는 “士林과 交遊하며 談論을 잘하였다”(67)고 한다. 殷浩도 “玄言을 잘하여 風流談論者의 으뜸이 되었다”(77)고 하고, 孫盛 역시 “名理를 잘 말해서, 당시에 殷浩가 명성을 오로지하였지만, 그와 더불어 抗論할만한 자는 오직 孫盛뿐이었다”(82)고 하였다.

이처럼 저명한 幕僚들 가운데에 뛰어난 玄學者나 清談家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은 清談 혹은 玄言의 재능이 당시에는 名聲을 얻는 가장 주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文學의 기능만이 名聲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 당사자의 品行이나 才識 등도 명성을 제고하는 근거가 되었다. 예컨대, 阮裕는 “德業으로 知名하였다”(49)고 하고, 溫嶠는 “孝悌로써 邦族의 칭송을 받았다”(67)고 하며, 紀瞻은 “方直하여 知名하였다”(68)고 한다. 이 외에도 表에서 보듯이, ‘有高行’ ‘有識良’ ‘輕財好俠’ ‘有才識’ ‘有志尚’ ‘才高行潔’ ‘通簡有高識’ ‘才操卓絕’ ‘有才志’ ‘有經國才略’ 등이 이들 저명한 幕僚들의 또 다

큰 공통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고 일반적인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名士'였다는 점이다. 殷浩와 陸玩은 "弱冠에 美名을 얻었다"고 하고, 荀羨은 "積德之族에서 태어나 弱冠에 王洽과 같은 名聲을 얻었다"(75) 한다. 薛兼은 "少年에 紀瞻 閔鴻 顧榮 賀循 등과 더불어 名聲을 나란히 하여 五儒이라 불리워졌다".(68) 羊曼도 "어렸을 때부터 知名하여 溫嶠 庾亮 阮放 桓彝 등과 더불어 뜻을 같이하고 友善하여 함께 中興의 名士가 되고...兗州八伯이라 불리워졌다".(49) 卞壺도 "弱冠에 司兗二州에서 名譽를 떨쳤다."(70) 王承 역시 "弱冠에 知名하여 (그의 高祖)王昶으로부터 王承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高名을 얻었으나 論者들은 祖父가 孫子에 미치지 못하고 孫子는 그 父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75) "當時의 名聲을 좇지 않았다"(76)는 王舒와 같은 특별한 존재도 없지 않았지만, 이같은 예외적 경우는 오히려 당시에 '名'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역설적으로 전해준다.

요컨대, 晉代 당시에 幕僚로 辟召되는 가장 핵심적 기준은 바로 '名'이었다. 名望있는 士, 즉 '名士'인가 아닌가, 혹은 어느정도 수준의 名士인가 하는 것이 辟召의 기준이 되었다. 빈번하게 辟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名聲을 얻은 名士였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 晉代 著名 幕僚들의 몇가지 공통점, 즉 名族 豪族의 子弟라는 家門의 背景, 文學의 기능, 특히 淸談의 역량, 그리고 德行과 才志와 같은 이상적 인간상을 이루는 資質 등은 바로 이들의 名望을 형성케 하는 기본 요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晉代에는 名族 豪族의 출신으로 文學 특히 玄學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추고 방정한 品行과 뛰어난 才志를 드러내면, 높은 名望을 얻는 名士가 되어, 여러 名府로부터 빈번하게 幕僚로 초빙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 名望을 이루

는 이 세가지 요소 가운데서 한가지, 혹은 두가지의 요소를 缺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名聲이 떨어져 幕僚로 辟召되는 횃수나 辟召 주체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빈번하게 名府에 辟召된 인물들은 이 세가지 요소를 모두, 혹은 거의 다 갖추어 府主의 幕僚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府主의 욕구, 즉 府主가 幕僚에게 기대한 것은 家門의 사회경제적 역량, 幕僚 본인의 文學的 능력과 인간적 資質,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형성된 幕僚의 名望이었다. 晉代의 幕府는 幕僚의 이러한 역량과 名望을 모아 名府가 되었다.

물론 府主가 幕僚를 辟召하는 이유가 반드시 여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毛據의 경우, 대대로 名將을 배출한 '將帥之家'의 출신으로 그 자신도 武將의 능력으로 幕僚가 되었다. 桓戌은 그 父 桓宜이 강력한 지방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溫嶠 劉胤 郭默 등의 參軍이 되었는데, 이 경우의 入幕은 入質의 의미를 띄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성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 3회 이상 辟召된 晉代의 저명한 幕僚 83인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분석하여 그 공통점을 적출함으로써 晉代 幕僚의 辟召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辟召된 횃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幕僚로서 이상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 한번 辟召되었다더라도 당시의 정치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幕府, 즉 名府에 辟召되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이 역시 당연히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위의 83인의 경우도, 전체 被召 횃수가 평균 4.1회였음에 비해 名府에 被召된 경우가 평균 3.2회였기 때문에, 전체의 약 4분의 3이 名府에 辟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辟召 횃수와 관계없이 당대의 제 1급 名府에 辟召된 인물들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晉代, 특히 東晉時代에 가장 名聲을 떨쳤던 名府 이자 가장 규모가 큰 大府, 즉 王敦과 王導, 庾亮과 庾翼, 郗鑒과 陶侃, 桓溫과 桓玄 등의 幕府에 辟召된 인물들 가운데서 列傳에 立傳되어 그 구체적 정보를 남기고 있는 경우들을 다음과 같이 表로 정리하였다.

<表3-가> 《晉書》列傳所載王敦幕僚一覽表(+;不就)

姓名	幕府名 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 本人能力
祖納	平北從事中郎	范陽	世更二千石 北州舊姓, 鎮西將軍(逃)兄/能清言 少孤貧
卞敦	鎮東大將軍軍司	濟陰	卞壹從父兄, 父 以名理著稱 廷尉/
趙誘	左將軍參軍	淮南	世以將顯 / (勇將)
鍾雅	大將軍從事中郎	潁川	父 公府掾 早終/ 好學有才志
王鑿	大將軍記室參軍	堂邑	父 御史中丞/ 少以文筆著稱
顧衆	大將軍從事中郎	吳郡	驃騎將軍榮族弟, 父 刺史/
何充	大將軍掾, 主簿	廬江	魏光祿禎曾孫, 祖 刺史, 父 太守/文義見稱 妻 明穆皇后妹
蔡謨	大將軍從事中郎	陳留	世爲著姓, 曾祖 魏尚書, 祖 太守, 父爲邦族所敬 丞相掾/博學
陶回	大將軍參軍	丹陽	祖 吳刺史, 父 太子中庶子/
袁瓌	大將軍諮議參軍	陳郡	魏郎中令渙曾孫, 祖父 早卒/避亂 求爲江淮間縣 因南渡
阮裕	大將軍主簿	陳留	阮籍族子, 刺史放弟 / 以德業知名
謝鯤	左, 大將軍長史	陳國	祖 典農中郎將, 父 以儒素顯 國子祭酒/少知名 通簡有高識 好老易
羊曼	? 右長史	泰山	太傅羊祜兄孫, 父 太守/少知名 爲中興名士 號兗州八伯
郭舒	?參軍, 從事中郎	順陽	/ 王澄 故吏
周筵	(舉兵)諮議參軍	義興	御史中丞處孫, 右將軍札兒子, 江東之豪/ 卓有才幹
周撫	? 從事中郎	廬江	安南將軍刺史訪子/ (將軍 監督 刺史)
周嵩	? 從事中郎	汝南	安東將軍濞子, 凱弟, 祖 少府卿/
陶瞻	? 參軍	廬江	大將軍陶侃子/ 少有才器 (人質)
溫嶠	? 左司馬	太原	曾祖 魏刺史, 祖 太守, 父 太守/博學能屬文 孝梯稱於邦族
熊遠	? 長史	豫章	祖 蒼頭/ 有志尚
熊紳	? 主簿	豫章	太常遠弟/ 名亞於遠
郭璞	? 記室參軍	河東	父 以公方著稱 太守/好經術 博學有高才 詞賦爲中興之冠

姓名	幕府名 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 本人能力
王嶠 陸玩	? 參軍 ? 長史	太原 吳郡	承族子,祖 魏尚書,父 以才智稱 北軍中候/家貧 伯父 吳吏部,父 相,錄尚書擘弟/家世不乏公 弱冠 有美名
劉胤	? 右司馬	東萊	漢齊悼惠王肥後/交結時豪 名著海岱間 士咸慕之 大殖財貨
鄧嶽 顧和	? 參軍,從事中郎 ? 主簿	陳郡 吳郡	/ 少有將帥才略 侍中衆族子,曾祖刺史,祖太守/族叔榮雅重之
樂道融	? 參軍	丹陽	/ 少有大志 好學不倦 (忠義列傳)
王諒	? 參其府事	丹陽	/ 少有幹略 (忠義列傳)
沈充	? 參軍(謀主)	?	/ 少好兵書 頗以雄豪 聞於鄉里

<表3-4> 王導 幕僚 一覽表

姓名	幕府名 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 本人能力
陶猷	右軍長史	丹陽	冠軍將軍璜弟子,祖 吳刺史,父 吳鎮南大將軍/與兄竝 有名
溫嶠 丁潭 孔坦	驃騎長史 驃騎司馬 太司馬司馬	太原 會稽 會稽	曾祖 魏刺史,祖 太守,父 太守/ 有識良 博學能屬文 祖 吳司徒,父 刺史/ 尚書僕射愉從子,祖太守,父 大司農 / 有雅望通左傳 解屬文
趙胤 郭璞	? 從事中郎 ? 參軍	淮南 河東	世以將顯, 廣武將軍誘子/ 父以公方著稱 太守/博學高才 詞賦中興之冠 妙於陰 陽算曆
袁耽	? 參軍,從事中郎	陳郡	散騎常侍袁瓌從祖準孫/ 少有才氣爲士類所稱 以雄豪 著
阮裕 周撫 楊方 葛洪 王蒙	司徒從事中郎+ 司徒從事中郎 司徒掾, 參軍事 司徒掾, 諮議參軍 司徒掾, 左西屬	陳留 廬江 會稽 丹陽 太原	籍族子, 刺史放弟/ 宏達不及放 而以德業知名 安南將軍刺史訪子/ (將軍 監督 刺史) 地寒 / 少好學 有異才 祖 吳大鴻臚, 父 太守/ 少好學 家貧 以儒學知名 靖皇后父, 曾祖 尚書, 祖 北軍中候, 父 令/ (外戚 列傳)
韓續 庾冰 王述 陶回 謝尚	司徒掾 司徒右長史 司徒中兵屬 司徒從事郎, 司馬 司徒掾, 西曹屬	廣陵 潁川 太原 丹陽 陳國	其先避亂 居於吳之嘉興, 父 吳大鴻臚/ (隱逸列傳) 庾亮 弟/ 以素素垂風 昶曾孫, 內史湛孫, 太守承子/ 清貞簡貴 不減祖父 家貧 祖 吳刺史, 父 太子中庶子/ (王敦大將軍長史)豫章太守鯁子/ 澹悟絕倫 博綜衆藝

姓名	幕府名 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 本人能力
鄧嶽 王寶	司徒從事中郎 司徒右長史	陳郡 新蔡	祖 吳奮武將軍, 父 丹陽丞 / 博覽書記 以家貧 求補山陰令 / 少有將帥才略
顧和 何琦	司徒掾, 左曹掾 司徒參軍	吳郡 廬江	侍中衆族子, 曾祖 刺史, 祖 太守 / 族叔榮雅重之 司空充從兄, 祖 後將軍, 父內史 / 好古博學 (孝友列傳)
李充	丞相掾, 記室參軍	江夏	父 刺史 / 以家貧 苦求外出 褚爽將許之爲縣

<表3-14> 庾亮 幕僚 一覽表

姓名	幕府名 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 本人能力
謝沈	平西功曹	會稽	曾祖 吳豫章, 父 吳都尉 / 博學多識 耕耘之暇 研精 墳籍
范汪	平西, 征西參軍	南陽	刺史左將軍咎孫 / 少孤貧 布衣蔬食 博學多通 善談名 理
殷浩 王羲之	征西記室參軍 征西參軍長史	陳郡 琅琊	父 光祿勳 / 弱冠有美名 尤善玄言 爲風流談論者所宗 導從子, 祖尚書郎, 父太守 / 善隸書 刁鑿瑯 公卿皆愛其 才器
孫盛	征西主簿, 參軍	太原	祖 父 太守 / 博學 善言名理 知名 以家貧親老 求爲 小邑
江惇 孫綽	征西儒林參軍 征西參軍	陳留 太原	江統子, 江彪弟 / 性好學 儒玄並綜 孫楚孫, 孫統弟 / 博學善屬文 于時文士 綽爲其冠

<表3-15> 庾翼 幕僚 一覽表

姓名	幕府名 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 本人能力
江彪 殷浩	諮議參軍長史 安西司馬, 軍司	陳留 陳郡	散騎常侍統子, 祖 曾祖 太守, 著作郎淳兄 / (文學之士) 父 光祿勳 / 弱冠有美名 尤善玄言 爲風流談論者所宗
毛穆之 孫盛	安西參軍 安西諮議參軍	滎陽 太原	刺史毛寶子 / (武將) 祖 父 太守 / 博學 善言名理 殷浩擅名一時 與抗論者 惟盛已

<表3-4> 郗鑒 幕僚 一覽表

姓名	幕府名 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 本人能力
褚爽 阮裕 江彪	車騎參軍 司空長史(疾辭) 司空掾 司馬	河南 陳留 陳留	康獻皇后父, 祖 縣吏 家貧 安東將軍, 父 太守/(外戚) 阮籍族子, 刺史放弟/ 宏達不及放 而以德業知名 散騎常侍江統子, 祖 曾祖 太守, 著作郎淳兄/(文學之士)
庾水 范汪	司空長史 司空掾	潁川 南陽	庾亮 弟/ 以雅素垂風 刺史左將軍咎孫/ 少孤貧 無以資級 乃廬於園中 善談名理
顧和 庾闡 江惇 蔡謨	司空長史 司空參軍, 從事郎 太尉掾 太尉軍司	吳郡 潁川 陳留 陳留	侍中衆族子, 曾祖 刺史, 祖 太守/ 族叔榮雅重之 祖 安北長史, 父 樂安長史/ (文苑列傳) 江統子, 江彪 弟/ 性好學 儒玄竝綜 世爲著姓, 曾祖 魏尚書, 祖 太守, 父爲邦族所敬 丞相掾/ 博學
謝沈	太尉?+	會稽	曾祖 吳豫章, 父 吳都尉/博學多識 耕耘之暇 研精墳籍
范宣	太尉主簿	陳留	/ 家至貧儉 躬耕供養 在郡立鄉校 教授恒數百人

<表3-4> 陶侃 幕僚 一覽表

姓名	幕府名 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 本人能力
孫盛 殷浩 孔坦	(太守)參軍 ? 佐吏 ? 長史	太原 陳郡 會稽	祖 父太守/善言名理 于時殷浩擅名一時 與抗論者惟盛而已 父 光祿勳/弱冠有美名 尤善玄言 爲風流談論者所宗 僕射愉從子, 祖 丹陽, 父 太司農/方直有雅望 通左傳解屬文
桓戎 庾翼	? 參軍 太尉?, 參軍, 從事郎	譙國 潁川	鎮南將軍宣子, 曾祖 太守, 祖 冠軍長史/ (人質) 征西亮弟, 明穆皇后兄/少有經綸大略 以帝舅 年少超居大任

<表3-사> 桓溫 幕僚 一覽表

姓名	幕府名 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 本人能力
袁喬	輔國司馬	陳郡	魏郎中令渙高孫, 散騎常侍懷子/
范汪	安西長史	南陽	刺史左將軍督孫/少孤貧 無以資級 博學多通 善談名理
謝奕	安西司馬	陳國	謝安兄/ 少有名譽 與桓溫善
孫盛	安西參軍, 從事郎	太原	祖父 太守/ 博學 善言名理 知名 家貧
毛穆之	安西, 太尉參軍	滎陽	刺史毛寶子/ (武將)
孟嘉	征西參軍, 從事中長史	江夏	吳司空曾孫/ 少知名
庾胤	西征長史	南平	曾祖 吳會稽守, 父 郡主簿/博學多通 以寒素博學知名於世
謝安	征西將軍司馬	陳國	衛將軍謝尚從弟, 家門富貴/ 少有重名 善行書
羅含	征西參軍, 戶曹	桂陽	曾祖 太守, 父 太守/ (文苑列傳)
周楚	征西參軍	汝南	漢末避地江南 家廬江, 安南將軍訪孫, 鎮西將軍撫子/
郗超	征西大將軍掾	高平	郗鑿孫, 會稽內史愔子/善談論 積錢數十萬 性好施
王珣	? 掾, 主簿	琅邪	王導孫, 領軍中書令洽子/
謝玄	? 掾	陳國	太保安兄子, 安西將軍奕子/ 有經國才略
鄧遐	? 參軍	陳郡	平南將軍嶽子/ 勇力絕人 氣蓋當時 號為名將
習鑿齒	(蒞)戶曹參軍	襄陽	宗族富盛 世為鄉豪/ 博學洽聞 以文筆著稱
江灌	? 諮議參軍	陳留	江迪從弟, 父 尚書郎/ 少知名 才識亞于迪
刁彝	大司馬司馬	渤海	尚書令協子, 曾祖 魏太守, 祖 御史中丞/斬讐人黨 由是知名
王坦之	大司馬長史	太原	昶高孫, 湛曾孫, 承孫, 述子/ 弱冠有重名 頗尚刑名學
王徽之	大司馬參軍	琅邪	王導從孫, 王羲之之子/
桓伊	大司馬參軍	焦國	鎮南宣族子, 父 護軍 有當世才幹/ 有武幹 識一時之妙
袁宏	大司馬記室	陳郡	侍中猷孫, 大司農瓌弟子, 父 令/少孤貧以運租自業 (文苑)
伏滔	大司馬參軍	平昌	/ (文苑列傳)
顧愷之	大司馬參軍	晉陵	父 尚書左丞/ (文苑列傳)

<表3-아> 桓玄 幕僚 一覽表

姓名	幕府 幕僚	本貫	家門背景 / 本人能力
諸葛長民 徐廣	平西參軍 大將軍文學 祭酒	琅邪 東莞	/ 有文武幹用 然不持行檢 無鄉曲之譽 侍中貌弟,祖率子弟士庶千餘家,世好學/百家數術 無不研覽
王綏	太尉右長史	太原	中書令坦之孫,尚書僕射愉子/少有美稱 以桓氏甥 其見寵待
虞嘯父	太尉左司馬	會稽	衛將軍虞潭(超合宗人及郡中大姓共起義軍 衆以數 萬)孫
劉敬宣	? 諮議參軍	彭城	祖 征虜,世以壯勇稱,征東牢之子/智略不及父 而技藝過之
劉邁	? 刑獄參軍	彭城	衛將軍毅兄,曾祖 相,叔父 左光祿大夫/ 少有才幹
辛恭靖	? 諮議參軍	隴西	/ (忠義列傳)
殷仲文	? 諮議參軍	陳郡	南蠻校尉凱弟,刺史仲堪從弟/ 善屬文 爲世所重
卞範之	? 長史	濟陰	

위의 <表3>에서 일별할 수 있는 자료들을 <表2>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앞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정리한 晉代 幕僚들의 사회경제적 성격의 일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表3>에 열거된 名府의 幕僚들 가운데는 이미 <表2>에서 살펴본 바 있는 인물들, 즉 빈번하게 辟召된 인기있는 幕僚들의 면면이 다수 포함되었음을 볼 수 있다. 晉代에 3회 이상 辟召된 83인의 인물들 가운데서 82인이 名府에 辟召되었, 특히 위의 8개 名府에만 36인이 辟召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孫盛처럼 陶侃 庾亮 庾翼 桓溫 등 4개의 幕府에 번갈아 辟召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表2>와 <表3>의 자료가 중복된 부분이 많은 만큼, 8개의 晉代 名府 幕僚들의 특성이 3회 이상 辟召된 幕僚들의 그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미리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사실 <表3>은 이들 8개 名府의 幕僚들도 대부분 名族 豪族의 子弟들로서 文學의 기능이 뛰어나고 品行과 才志가 높게 평가된 名士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로 정리되어 있다. 단지 <表2>의 그것에 비해 이러한 자료들의 출현빈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을 뿐이다. <表3>에 정리된 인물들은 延人員으로 모두 111명인데, 이 가운데서 55인이 뛰어난 文學的 기능의 소유자들이었다. 그 중 12인은 精談에 능하여 이름을 떨쳤고, 그 외의 인물들도 經學과 文章과 書藝 등에 통달한 文學之士였다. 또한 이들 111명 가운데서 25인이 德行과 才志가 돋보였다. 文學으로써든 德行 才志로써든 이들 가운데 적어도 38인이 '知名' 즉 세상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名士들이었다고 明記되어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당시에 幕僚에게 기대된 일반적 조건들과 상이한 배경과 기능을 보여주는 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車胤은 "家貧하여 기름을 구하지 못하여 주머니에 반딧불벌레 수십마리를 넣어 책을 읽었다"(83)는 그 유명한 일화를 남긴 인물로서, 史家는 그를 가리켜 "以寒素博學知名於世"(83)라 하였다. 또한 鄧遐는 "勇力이 絶人하고 氣가 當時를 덮어 名將이라 불리워졌다"(81)는 인물이다. 그런가 하면, 刁韞는 자기 부친의 怨讐를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부친의 墓에서 제사지냈다는 이유로써 '知名'되었다(69). 심지어는 諸葛長民처럼 文武의 才幹은 있으나 品行이 바르지 못하여 '鄉曲之譽'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85). 이외에도 이들 가운데 8인이 文學이 아닌 將帥의 자질로써 知名되었고 15인이 '家貧'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앞서 확인한 바 있는 著名 幕僚들의 기본 조건들과 이들 名府 幕僚들의 조건들이 서로 상충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록 자료상의 출현빈도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8개 名府의 幕僚들의 대부분도, 빈번하게 辟召된 幕僚들과 마찬가지로, 막강한 名族 豪族의 배경과 뛰어난 文學的 기능 및 돋보이는 品行과 才志 등을 갖춘 '名

士'들이었다. 특히 이들의 豪族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성격이 주목된다. 그 예로서, 周筵과 沈充은 江南의 豪族으로, 당시에 “江東의 豪族 가운데서 周氏와 沈氏가 가장 강하다”(58)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沈充은 “雄豪로서 鄉里에 알려져 있었다”(98). 袁耽도 “雄豪로서 著名하였다”(83). 習鑿齒는 “宗族이 富盛하여 대대로 鄉豪가 되었다”(82)고 하고, 祖納은 “대대로 二千石을 지낸 北州의 舊姓이었다”(62). 謝安의 “家門이 富貴하였다”(79)함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虞嘯父의 경우, 그의 祖父 虞潭이 (王敦의 반란시에) “本縣에서 宗人들을 超合하여 郡中の 大姓들과 함께 義軍을 일으켜 무리 數萬을 규합하고 明威將軍을 자칭하였다”(76)는 실력의 豪族이었다. 이러한 豪族的 實力이 名府의 幕僚로 辟召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였음은 앞서 살펴본 著名 幕僚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가운데 祖父가 二千石 이상의 고급관료를 역임한 경우가 적어도 9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家門의 배경이 名府의 辟召 조건의 하나였음을 확인케 한다.

가문의 배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학적 역량이나 인간적 자질이 名府 辟召의 중요한 조건이었음도 확인된다. ‘博學’ ‘多識’이나 ‘能屬文’ ‘善書’ 혹은 ‘善談名理’ 등의 文學적 역량과 ‘有經國才略’ ‘智略’ ‘才幹’ 등의 일반적 자질도 名府에 辟召되는데 필요한 필수적 조건이었다. 비록 이러한 역량과 자질이 사료에 특기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名府 幕僚의 문학적 기능이나 인간적 자질에 대한 여론의 평판은 일반적으로 당대에 가장 고급한 수준이었다. 요컨대, 가문적 배경이나 문학적 역량, 혹은 인간적 자질에 대한 높은 평판으로 인해 名士의 名望을 획득한 인물들이 幕僚로 辟召되어 결집된 幕府가 곧 名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당시의 幕府가 名士의 名望이라는 독특한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힘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南北朝의 경우는 어떠하였을까? 南朝에서 가장 큰 幕府는 劉裕의 幕府였고 北朝에서 가장 유명한 幕府는 高歡의 幕府였다. 南北朝의 대표적인 예로서, 劉裕와 高歡이 개설한 幕府들의 幕僚들에 관한 사회경제적 정보들을 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에 정리된 幕僚들은 史書에 立傳된 경우에 국한되었다.

<表4-가> 劉裕 幕府 一覽表

時期	將軍	州郡	<幕職> 都督 / 兼領
隆安中			<冠軍將軍(孫無終)司馬> <前將軍(劉牢之)參軍>
元興中	建武	下丕太守	<鎮北將軍(劉牢之)參軍>
	建武	下丕太守	<撫軍將軍(桓修)中兵參軍>
	建武	(加)彭城內史	<撫軍將軍(桓修)中兵參軍> / (義軍盟主)
義旗	(推)鎮軍	徐州刺史	使持節 都督揚徐兗豫青冀幽8州諸軍事
	鎮軍	(領)青州	(加)都督江州諸軍事
義熙1	(詔)鎮軍	徐青2州	使持節 都督揚徐兗豫青冀幽并江9州諸軍事
	鎮軍	徐兗2州	使持節 都督荊司梁益?雍涼7州 并前16州 督交廣2州
北伐入輔	車騎	徐揚2州	(上同) /侍中 開府儀同三司錄尚書事
盧循平定	中軍	(加)北青冀2州	(上同)
義熙7	太尉	(解)冀州	(上同) /中書監
	(領)鎮西	(領)豫州	(上同)
	(領)南蠻	(領)荊州	
	(領)平北	(領)兗州	(增)都督南秦(凡22州)
	(領)征西	(領)司北雍徐	(加)中外大都督
	相國	揚州牧	/ (解)中書監
相國	揚州牧 司豫北徐雍4州	/ 宋公(九錫) / 宋王	

<表4-1> 劉裕 幕僚 一覽表

姓名	幕府名/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本人能力
劉穆之	建武主簿 鎮軍主簿 車騎主簿 記室錄事 中軍太尉司馬軍司	東莞	漢齊悼惠王後,世居京口	少好書傳 博覽多通 建武將軍江凱所知
王弘	鎮軍諮議參軍 中軍諮議參軍 太尉長史 左長史	琅邪	曾祖導 督丞相, 祖洽 中領軍, 父珣 司徒	好學 以清活知名 燔燒券書 一不收責
徐羨之	鎮軍參軍 太尉諮議 左司馬	東海 北地	祖 刺史, 父 令 高祖 司隸校尉, 父以學業知名 太守, 兄 亦儒學 尚書	高祖同府 沈相親結 涉經史 尤善文詞
傅亮	太尉從事中郎	高平	左將軍韶弟	姊事兄 以和謹致稱
檀道濟	建武參軍 太尉參軍主簿諮議	陳郡	祖 太守, 父 驃騎長史, 兄 高祖鎮軍長史	蠡文義 朗瞻多通 祖沈加愛賞 群僚 莫及
謝晦	太尉參軍 刑獄 主簿 從事中郎	北海	祖 符堅將相, 父 太守	諸子兵書 論軍國 大事
王鎮惡	中軍太尉行參軍	高平	世居京口, 弟道濟有大功	嘉其合門從義
檀韶	建武參軍 鎮軍參軍 車騎參軍 中軍諮議參軍	河內	世居京口	高祖少舊 從平京城
向靖	建武參軍 鎮軍參軍 中軍諮議參軍 太尉諮議參軍	彭城	左將軍懷肅弟	賜賚於宗族 家無 餘財
劉懷慎	鎮軍參軍	沛郡	祖 征虜, 衛將軍毅 族兄, 道濟兄, 家在京口	有志幹 盡心高祖
劉粹	建武參軍 鎮軍參軍 車騎中軍參軍 中軍諮議參軍	太原	祖 父 事符堅 皆二千石, 晉太元末 徙居彭城	沈審 有意略 通陰 陽
王懿	相國右司馬 鎮軍中兵參軍 太尉諮議參軍			

姓名	幕府名/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本人能力
張邵	太尉賊曹參軍 中軍諮議參軍	?	會稽太守裕弟, 父 尚書	心政事 精力絶人
孟懷玉	建武司馬 中軍諮議參軍	平昌	高祖 河南尹, 祖 右光祿大夫, 父 光祿勳, 世居京口	(武將)
孟龍符	太尉諮議參軍 建武參軍	平昌	懷玉弟, 祖 右光祿, 高祖 河南尹	驍果有膽氣 幹力 絶人 少好游俠 結客於 閭里 早爲高祖所知 寬厚善待士 多技 藝
劉敬宣	鎮軍參軍 車騎參軍 中軍諮議參軍	彭城	漢楚元王後, 祖 征虜, 父 宰之 鎮北將軍 左將軍韶弟	性矜豪 樂在外於 恣
檀祗	建武參軍	高平		
朱齡石	鎮軍參軍 建武參軍 鎮軍參軍 ? 參軍 參軍 參軍 太尉諮議參軍 相國右司馬	沛郡	家世將帥, 祖 建威, 伯父 內史, 父 太守, 世受桓氏厚恩	少好武事 有武幹 高祖甚親委之
朱超石	車騎參軍 中兵	沛郡	齡石弟, 家世將帥	果銳善騎乘 雖出自將家 閑尺 牘 有大志 讀史籍 能騎射
毛修之	鎮軍諮議參軍	滎陽	祖 伯父 父 刺史	
傅弘 刪恩	相國右司馬 太尉行參軍 太尉長兼行參軍	北地 蘭陵	高祖 晉司徒, 父 刺史散騎常侍 高祖征孫恩縣差爲征民 充乙士	少大志 善騎射 使伐馬劬 恩常 負大束 膽力過人 自稱 爲鄙人 每有戎事 不辭艱 劇
劉鐘	鎮軍參軍督護 車騎長史兼行參軍 太尉行參軍 參軍	彭城	少孤 常慷慨於貧賤	
虞丘進	太尉行參軍	東海		少時隨謝玄討符 堅有功 居喪以毀稱
胡藩	鎮軍參軍 太尉參軍 相國參軍	豫章	祖 散騎常侍, 父 治書侍御史	
庾悅	鎮軍諮議參軍 車騎從事中郎 車騎中軍司馬	潁川	曾祖 亮 曾 太尉, 祖 內史, 父 西中郎將 刺史	

姓名	幕府名/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本人能力
王誕	太尉諮議 長史	琅邪	太保弘 從兄, 祖 中軍, 父 太常, 叔父珣 尚書令	少有才藻
謝景仁	鎮軍司馬	陳郡	衛將軍晦從叔父, 祖太傅安弟,	博聞強識 高祖 雅相重
謝述	車騎司馬 太尉參軍	陳郡	父 內史, 廬陵王義真妃景仁女 僕射景仁弟, 衛將軍晦從叔父	少有志行 甚被知器
袁湛	鎮軍諮議參軍	陳郡	祖太守, 父 琅邪內史, 竝知名	太祖即位 以后父 追贈
袁豹 褚叔度	太尉長史 太尉諮議 長史 車騎參軍 中軍中兵參軍 太尉諮議參軍 相國右司馬	陳郡 河南	從外祖 謝安, 謝玄之女妻之 侍中湛弟, 祖 父 竝知名 曾祖褚爽 管太傅, 祖 秘書監, 父 金紫光祿大夫, 妹 恭帝后	好學博聞 多覽典籍 廣營賂貨 家財豐積 高祖以其名家 而能 竭盡心力 甚嘉之
張茂度	太尉參軍 主簿	吳郡	張良後, 高祖曾祖管光祿大夫	有吏能 內足於財
庾登之	錄事參軍 鎮軍參軍 太尉主簿	潁川	祖 刺史, 父 侍中尚書 曾祖水督司空, 祖 刺史, 父 太守	雖不涉學 善於世事
謝方明	? 從事中郎	陳郡	尚書僕射景仁從祖弟, 祖 太守, 父 中書侍郎, 家在會稽	結門生義故得百餘 人 無他技能 可謂名家 駒
江夷	鎮軍行參軍 中軍太尉從事中 郎	濟陽	祖 護軍, 父 驃騎諮議參軍	歷任以和簡著稱
孔靖	太尉諮議 長史 太尉軍諮祭酒 相國軍諮祭酒	會稽	祖 車騎將軍, 父 散騎常侍	務存治實 修飾學校
羊玄保	鎮軍參軍 太尉參軍 主簿	泰山	祖 尚書都官郎, 父 中書侍郎	不營財利 處家儉薄
臧焘	鎮軍參軍 車騎參軍 中軍參軍	東莞	武敬皇后兄	少好學 善 三禮 操行為鄉里所稱 雖外戚貴顯而茅屋 蔬食
徐廣	太尉參軍 鎮軍諮議參軍	東莞	父 都水使者, 兄 太子前衛率	家世好學 至廣尤精 百家數術 無不研覽 能屬文 善於文章
謝瞻	鎮軍參軍 相國從事中郎	陳郡	衛將軍晦兄 “臣本素士 父祖不過二千石”	當時才士 莫不歎異

姓名	幕府名/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本人能力
孔琳之	平西長史	會稽	祖 丞相掾, 父 光祿大夫	有志力 好文義 善草隸
蔡廓	平北征西長史 太尉參軍 中郎 中軍諮議參軍 相國從事中郎	濟陽	曾祖謨 晉司徒, 祖 撫軍長史, 父 司徒左西屬	不治產業 家尤貧素 博涉群書 言行以禮
王惠	太尉行參軍 主簿 從事中郎	琅邪	太保弘 從祖弟, 祖 車騎將軍, 父 左光祿大夫, 叔父司徒謐	言清理遠 兄頗好聚斂 廣營田業
王淮之	中軍長史 中軍中軍參軍 中軍太尉主簿	琅邪	高祖 尚書僕射, 曾祖 尚書令, 祖 父 竝御史中丞 四世居此職	惠曰 何用田為? 博聞多識 練悉朝儀 兼明禮傳 瞻於文辭
王華	鎮西平北太尉參軍 鎮西主簿	琅邪	祖 衛將軍, 父 司徒左長史	有志行 為時人 所稱美
王雲首	冠軍功曹 長史 鎮西長史	琅邪	太保王少弟, 華從弟	有識局智度 兄弟分財 唯圖書 而已
殷景仁	太尉行參軍	陳郡	曾祖 太常, 祖 左光祿大夫	王謐將 學不為文 下職讀書 不阿強貴
鄭鮮之	(車騎?)右長史	滎陽	祖 大司農, 父 尚書郎	儒史百家 莫不該覽 善於臨民 政績尤著
何承天	太尉行參軍	東海	從祖 右衛將軍, 叔父 令	有清尚 樂山水
劉道產	中軍行參軍	彭城	太尉諮議參軍簡子	
王敬弘	車騎從事中郎 太尉從事中郎	琅邪	曾祖 驃騎將軍, 祖 刺史, 父 太守, 叔父姊夫	
何尚之	征西主簿	廬江	祖 太守, 父 金紫光祿大夫	操立見稱 家貧 置 玄學
謝靈運	太尉參軍 相國從事中郎	陳郡	祖 車騎將軍, 父 秘書郎 父祖之資 生業甚厚	文章之美 江左莫逮 奴童既衆 義故門生 數百
劉湛	太尉行參軍	南陽	祖 父 竝左光祿 開府儀同三司	博涉史傳 識前世舊 典 高祖謝晦稱其有器 幹
范曄	相國參軍	順陽	車騎將軍泰子	博涉經史 善為文章
蕭思話	相國掾	蘭陵	孝懿皇后弟子, 父 刺史冠軍	有令譽 涉獵書傳
王鎮之	相國參軍 相國諮議參軍	琅邪	徵士弘兄, 曾祖 驃騎將軍, 祖 中書郎, 父 令	有能名 善於吏職
徐豁	?建武司馬 率 ?中軍參軍	東莞	中散大夫廣兒子, 父 太子左衛率	精練明理 為一世所 推

姓名	幕府名/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本人能力
戴暉	太尉行參軍+	譙郡	父 兄 竝隱遁有高明,	著述遺論 (隱逸列傳) 居喪過 禮為鄉閭所稱 妙善琴書 家貧(隱逸)
宗炳	太尉參軍 掾 +	南陽	祖 太守, 父 令, 兄 太守	

<表5-가> 高歡 幕府 一覽表

時期	幕府	州郡	都督	兼領
孝昌中 孝莊帝 簡閔帝 廢帝 孝武帝 孝靜帝	大丞相 柱國大將軍 大丞相 天柱大將軍 相國 都督中外	晉州刺史 世襲定州	(爾朱榮)親信都督 東道大行臺 大行臺 都督中外諸軍事	第三鎮人酋長 第一鎮人酋長 太師

<表5-나>高歡幕僚 一覽表

姓名	幕府名 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本人能力
盧勇	丞相主簿	范陽	北州冠族,文偉族人,父 太守	有馬五百匹獻之朝廷
崔俊	(起義)諮議參軍	清河	父 魏七兵尚書, 自以門閥素高	有名望 為當時所知
竇瑗	丞相右長史	遼西	(高祖於信都 俊歸焉 高祖甚悅 漢大將軍武後, 曾祖 祖 太守, 宗室以其寒士 相與輕之, 貧窘	清河部曲千人) 遊學 治有清白之稱 清尚之操 為時所重
竇泰	晉州參謀軍事	太安	祖 鎮將 因居北邊	善騎射 有勇略
孫騰	都督府長史	咸陽	祖 中書舍人 人魏 因居北邊	妻武明皇后妹 明解吏事 常豫謀策
封子繪	晉州長史 中外府主簿	渤海	(刺史)隆之子, 祖父世為本州	有器局 與父學 義信都
李義深	大丞相主簿 大丞相記室參軍 司馬	趙郡	百姓素所歸附 祖 中書侍郎, 父 別駕	收集部曲一千人 學涉經史 有當世才用 歸高祖於信都 好財利

姓名	幕府名 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本人能力
崔瞻	相府中兵參軍 主簿 司馬	清河	祖 尚書, 父 俊 有名望 門閥高 以才地自矜	聰明強學 高祖 諸子友 皆一 所與周旋 時名望 文才著稱 能通 鮮卑語 機敏 頗涉文史 有幹用 好名理 探味玄 宗
孫寔	相府主簿	樂安		使高祖 被顧識 傳通教令 甚見 親賞
陳元康	相府功曹參軍	廣宗	父 鎮南將軍 金紫光祿大夫	有幹用 深為 高祖所信
杜弼	大丞相法曹行參軍	中山	祖 太守, 父 令, 家貧無書	頗曉吏職 威見 親待
張襄	丞相府參軍 從事郎 中外從事中郎	代郡	父 太守	居腹心之寄與 二張相亞
張亮	丞相府參軍	西河		閣習書計 明悟有幹略 以幹用稱 宿有能名
張耀	相府掾 倉庫二曹	上谷	父 晉州長史	少為書生 避地渤海 敏慧 高祖委以 腹心
趙起	相府騎曹參軍	廣平	父 幽州錄事參軍 有幹用	有器度 好學不倦 折節讀書 以文華顯
徐遠	丞相騎兵參軍	廣寧	曾祖 軍將 戊主 因家於朔	孤貧為尚書 賤客供寫書 少馳令譽 為世所推
王峻	相府墨曹參軍	靈丘		文章外善音律 豐財產 善書計 以幹濟見知
薛琬	丞相長史	河南	其先代人, 父 刺史	明解書計 典執兵馬
崔暹	丞相長史	博陵	世為北州著姓, 父 州主簿	
高德政	相府掾	渤海	父 刺史	
王晞	中外府功曹參軍	北海	王猛後, 祖 有名望, 尚書卿子	
魏收	中外府主簿 屬	鉅鹿	曾祖 祖 父 贈儀同 定州刺史	
趙彥深	大丞相功曹參軍	清河	高祖 太守, 父 中書舍人	
祖珽	中外府功曹	范陽	父 護軍將軍	
唐邕	? 直外兵曹	太原	父 令	
白建	大丞相府騎兵曹	太原		

姓名	幕府名 幕僚職	本貫	家門背景	本人能力
碁連猛	中外府帳內都督	代人 代郡	父 太守 / 武將中頗疾姦妄言議	時有可采 故引知機事
張華原 崔伯謙 邸珍	大丞相府屬 相府功曹 ? 長史	博陵 中山	父 太守, 族弟暹 當時寵要	有器度 孤貧 恩信大行 從高祖起義 求取無厭
信都芳	? 館客 參軍	河間		以術數干高 祖爲館客
張保洛	? 帳內(都督)	代人	家世好賓客尙氣俠頗爲北土所知	少率健善弓馬 妙於騎射
高阿那肱	? 庫典	善無	父 從高祖起義	便僻善事人

위의 表들을 살펴보면, 晉代 名府들의 幕僚들에서 볼 수 있었던 일반적 특성들, 즉 名族 출신으로 뛰어난 文學的 素養과 높은 人間적 才질을 갖춘 인물상을 南北朝의 名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劉裕의 鎮軍府와 中軍府, 太尉府 등 3개 幕府를 '隨府' 하면서 上佐를 두루 역임한 劉裕의 대표적 幕僚 王弘은 琅邪 王氏의 名族 출신으로, 晉代의 名士요 高官이었던 丞相 王導의 曾孫이요 中領軍 王裕의 孫子이고 司徒 王珣의 아들이었다. 그는 名族의 子弟였을 뿐만 아니라, '好學'하여 '知名'하였고, "券書를 불태워 일체 收責하지 않았다"는 등 '淸活'로써도 높은 명성을 얻었다. 요컨대 王弘은 名族 출신, 文學的 능력, 고매한 人品 등, 당시 사회로부터 높은 名望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魏晉南北朝 시기의 전형적인 名士였다. 王弘처럼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인물은 흔치 않겠지만, 晉代의 名府 幕僚들이 갖춘 이들 세 조건들이 劉裕나 高歡 등 南北朝의 幕府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음은 위의 表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劉裕와 高歡의 幕僚들에게서는 晉代 名府들의 그것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들이 더 발견된다. 먼저 劉裕의 幕府에서는 府主와 幕僚 간의 심정적 결합, 즉 정치적 야망과 의지의 投合이 자주 보인다. 예컨대, 徐羨之는 劉裕와 같은 幕府에 있으면서 서로 깊이 '親結'한 인연이 있어, 劉裕의 鎮軍府에 辟召되었다. 向靖도 劉裕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劉裕의 4개 幕府에 두루 참여하였다. 劉裕에게는 幕僚와의 심정적 결합이라는 조건이 매우 중시되었다. 劉裕는 褚叔度가 “名家의 자제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힘쓰기 때문에 매우 가상히 여겼다”고 한다. 이는 劉裕에게도 幕僚의 가문적 배경이 중요하였지만, 이에 못지 않게 幕僚의 '心腹'이 중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온 門中과 함께 劉裕의 '義舉'에 따른 檀韶의 경우처럼, 정치적 뜻을 같이하여 幕僚로서 起兵에 참여한 경우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主客의 심정적 결합이 중시된 것은 이미 漢代 幕府에서 확인한 바 있다. 幕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府主와 幕僚의 主客的, 心情的 결합이라면, 이러한 원리가 南朝의 劉裕 幕府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음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北朝 高歡 幕府의 幕僚들에게는 幕府를 운영하는 구체적인 기능이 특히 강조되었다. 孫騰이 “吏事に 밝아 항상 謀策에 참여하였다”거나, 張纘가 “吏職을 잘 알아서 親待받았다”는 등의 예가 보인다. 그 외에도 書計에 밝아 幕府의 요직을 책임맡은 唐邕과 白建, “教令의 傳通을 잘해서 크게 親賞받았다”는 張纂, 術數에 능하여 館客이 된 信都芳, '幹用'이 있다 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고 府主의 신임을 받은 張亮과 薛琡 등이 모두 高歡의 幕府에 모여 있었다. 幕僚에게 기대된 이러한 실무적 기능 역시 이미 漢代의 幕府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幕僚에게 幕府를 운영하는 실무적 기능을 크게 기대하였다 함은 그

幕府가 실제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음을 뜻한다. 高歡의 幕府는 당시 北魏 朝廷의 역할을 대신한 幕府였기 때문에, 그 幕僚에게는 官僚로서의 능력과 역할이 기대되었을 것이다.

南北朝의 구분없이 당시 名府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새로운 점은 軍事的 역량이나 武의 기능을 소지한 인물이 다수 幕僚로 辟召되었다는 것이다. 諸子兵書에 통하고 軍國大事의 논의에 능한 王鎮惡, '將家' 출신으로 武藝에 능한 朱超石, 騎射에 능한 毛修之와 傅弘, 貧賤한 신분의 출신이나 뛰어난 腕力으로 많은 軍功을 세운 蒯恩과 劉鐘 등이 모두 劉裕의 幕府를 구성하고 있었다. 高歡의 幕府에도 騎射에 능하고 勇略이 뛰어난 竇泰와 高阿那肱, "대대로 賓客을 좋아하고 俠氣를 숭상하여 北上에서 널리 알려진" 집안에서 태어나 자신도 힘이 세고 弓馬에 능하였던 張保洛 등이 포진해 있었다. 劉裕 등은 幕僚들의 이러한 武的 기능을 매우 중시하여, "將帥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武事를 좋아하고 武幹이 있는" 朱齡石을 매우 '親委'하였다. 南北朝의 府主들은 幕僚들에게 전략전술적 參謀 뿐만 아니라 완력의 직접적 행사까지 기대하였던 것이다. 南北朝時代에는 幕府가 군사적 활동을 전개할 때, 幕僚가 직접 군대를 통솔하거나 幕僚들이 軍主와 같은 지휘관직을 겸하는 관례가 일반화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幕僚의 武的 기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將軍의 幕府組織과 領兵組織이 엄격히 구분되어 이원화되어 있었던 漢代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이와 같이 南朝의 劉裕 幕府와 北朝의 高歡 幕府를 구성하였던 幕僚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기능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南北朝의 幕僚들은 胥代 幕僚들과 마찬가지로 名族 출신의 文學之士로서 높은 名望을 얻고 있었다는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府主와의

심정적 결합과 幕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무적 기능 등이 다시 강조되었으며, 武的 기능의 保持라는 특성이 새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가운데서 府主와의 심정적 결합과 幕府經營의 실무기능은 이미 漢代의 幕僚에서 확인된, 幕僚의 본래적이고도 일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晉代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南北朝時期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곧 南北朝 幕僚의 특징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보다는 차라리 晉代 幕僚의 특징적 측면을 돋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晉代의 幕府에서는 府主와 幕僚의 심정적 결합관계가 강조되고 幕府經營을 위한 幕僚의 실무적 기능이 강조되기 보다는, 오히려 幕僚의 사회적 名望을 결집하는 측면이 크게 강조되었다. 幕府가 幕僚의 명망을 결집하는 기능을 발휘한 것은 漢代 이후 南北朝時代에 이르기까지 일반화한 것이지만, 특히 晉代에는 이러한 기능이 각별히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南北朝時代에는 이른바 霸府가 발달하여 朝廷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였기 때문에, 幕僚들에게는 권력기구의 운영능력이 기대되었다. 晉代의 幕僚들은 대부분 名族 출신의 名士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자립성이 높아 府主에 대한 幕僚의 心服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나, 南北朝時代에는 府主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幕府에 참여한 寒門 출신의 幕僚들도 적지않게 출현하여 府主와 幕僚의 심정적 결합관계가 다시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幕僚에 대해 武的 기능을 기대하는 현상이 南北朝時代에 나타난 것은 幕府制가 변질되는 징후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IV. 府主와 幕僚의 사회경제적 관계

지금까지 魏晉南北朝時代 幕府의 府主와 幕僚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魏晉南北朝시대에는 府主와 幕僚의 대부분이 名族 출신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특히 晉代의 幕府에서 현저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幕僚의 대부분이 名族의 출신이라 함은 당대의 府主들이 幕僚를 辟召하는 기준이 名族出身 여부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晉書》 기사들은 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胡毋輔之는 당시 太傅(東海王)越의 從事中郎이어서 光逸을 越에게 薦舉하였으나, 越은 그가 門寒하다는 이유로 不召하였다. 越은 그뒤 閑宴중에 輔之가 천거한 바 없다고 責하니, 輔之가 이르기를, 전에 光逸을 천거하였으나 公이 世家가 아니라고 不召하였으니 不舉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越이 곧 辟召하여 隰가 郡縣에 다다르니, 모두가 착오일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逸이 맞다는 사실을 안 뒤에야 禮를 갖추어 보내었다. (《晉書》 49-1384)

司徒 王導가 王述을 門地로써 辟召하여 中兵屬을 삼았다. (《晉書》 75-1963)

물론 府主가 幕僚를 辟召함에 있어 반드시 世族이어야 한다는 제도적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晉代의 府主들은 대부분 名族의 자제를 幕僚로 辟召하고자 했다. 물론 寒門의 자제를 辟召한 府主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寒士를 辟召한다 함은 정치적 야망이 전혀 없음을 내보이고자 할 때 취하는 겸양의 태도일 뿐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다음의 기사는 당시의 일반적 경향과는 반대되는 예외적 경우를 전하고 있다.

陸玩은 비록 公輔의 지위에 올랐으나 謙讓하여 掾屬을 辟召하지 않았다. 成帝가 이를 듣고 권하니, 玩은 부득이 命에 따랐으나, 辟召한 자는 모두 寒素有行之士였다. (《晉書》 77-2026)

또한 다음의 기사는 名族의 자제가 아니면, 幕僚가 되더라도 名府의 幕僚는 될 수 없고 '府望'이 떨어지는 幕府에 辟召될 뿐이었음을 전하고 있다.

陶侃은...일찍이 孤貧하여 縣吏가 되었다...伏波將軍 孫秀가 亡國之庶라 하여 府望이 不顯하니 中華의 人士들이 그 掾屬되기를 부끄럽게 여겼다. 이에 陶侃은 寒宦이라 하여 辟召하여 舍人으로 삼았다. (《晉書》 66-1768~70)

晉代의 幕僚들은 名族이었을 뿐만 아니라 名士이기도 했다. 당시 名士의 名望은 鄉里의 輿論에 기초하였다. 다음의 기사는 晉代의 幕僚가 향리에서의 명망에 따라 辟召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孫楚는...鄉曲之譽를 缺하여, 나이 40여가 되어서야 비로소 參鎮東軍事하였다. (《晉書》 56-1539)

그러면 晉代의 將軍들, 특히 名府의 府主들이 이처럼 名族의 자제나 향리에서 명망높은 名士들을 幕僚로 초빙한 까닭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실무적 기능을 기대하였는가? 그러나 다음의 기사는 이들 名族子弟들에게는 결코 실무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王羲之의)徽之는...大司馬 桓溫의 參軍이 되었으나, 蓬首散帶하면서 府事를 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車騎將軍 桓沖의

騎兵參軍이 되어서도, 沖이 卿의 署는 무슨 曹인가라고 묻자, 馬曹인 것 같다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몇 마리를 관리하는가라고 물으니, 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數를 알겠는가라고 답하였다. (《竹書》 80-2103)

王徽之는 東晉 최고의 名族인 琅邪王氏의 子제이였지만, 幕府의 구체적 실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면 이처럼 실무에는 무능하나 명족이라는 배경을 가진 인물들을 辟召한 까닭은 무엇인가? 다음의 기사가 그 답의 일단을 제공한다.

趙王倫이 相國이 되어, 大名을 거두기 위해 海內德望之士를 選하여, 江夏 李重과 荀組를 左右長史로 삼고 東平 王璜과 沛國 劉漢을 左右司馬로 삼았다. (《竹書》 39-1159)

趙王倫이 李重등 當代 제 1급의 名士들을 幕僚로 초빙한 이유는 “大名을 거두기 위해서”였다. 名士를 幕僚로 모아 幕府의 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名府는 名士가 결집된 곳이다. 名族의 子제라는 배경도 名士가 되는 가장 주요한 조건의 하나였기 때문에, 晉代 名府의 幕僚들 가운데 名族의 子제들이 많았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名族이 名士를 많이 배출한 名望家라면, 豪族은 사회경제적으로 막강한 실력을 갖춘 大族이라 할 수 있다. 晉代 大府의 幕僚들 가운데는 豪族의 子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義興周氏였다. 元帝가 江左에서 幕府를 열어 華北과 江南의 많은 名士들을 幕僚로 辟召하였을 때, 義興의 豪族 周玘도 초빙하였다.

元帝가 처음 江左에 鎮하였을 때, 周玘를 舍曹屬으로 삼았다...玘는 宗族이 强盛하고 人情이 歸한 바여서 帝가 疑懼하였다. 당시 中州人士들이 王業을 佐佑하였으나 玘는 스스

로 소외된다고 생각하여 안으로 썬뿔을 품었다...帝는...妃를
 召하여 領東司馬로 삼았다...또한 下命하여 이르기를...이제 軍
 諸祭酒로 삼고 將軍은 如故하며 公으로 進爵하고 僚屬의 祿
 秩은 開國의 禮와 같게 한다고 하였다...당시 中國의 亡官失
 守之主로서 피난해 온 자들이 다수 顯位에 居하면서 吳人을
 駕御하여 吳人이 자못 원망하였다. (妃의 子)總은 이로 인해
 서 起兵하려 하여, 吳興郡의 功曹 徐馥과 潛結하였는데, 馥의
 家에는 部曲이 있었으며...豪俠樂亂者들이 혼연히 附從하였
 다...그러나 元帝는 周氏가 奕世의 豪望이고 吳人의 所從이라
 하여, 窮治하지 않고 이전처럼 撫摩하였다...(妃의 弟)札은...어
 려서부터 豪右를 자처하여 州郡이 辟召하여도 모두 不就하였
 다. (《晉書》 58-1574-75)

위의 기사에 의하면, 東晉元帝 司馬睿와 周玘의 관계는 심정적 결
 합관계는 아니었다. 周玘를 幕僚로 辟召한 뒤에도, 司馬睿는 그를 의심
 하고 꺼려하였고, 周玘는 자신이 幕府의 핵심부에서 소외되었다고 생
 각하여 원망하였다. 府主와 幕僚가 서로 믿고 존경함으로 마음으로 결
 합되는 幕府 원래의 구성원리와는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司
 馬睿가 周玘를 辟召하고 또 上佐로 올린 까닭은 오로지 그의 宗族이
 強盛하고 吳人의 마음이 周氏에 歸服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周玘의
 아들이 部曲과 豪俠들을 규합하여 반항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司
 馬睿는 周氏가 奕世의 豪望이라 하여 문제삼지 않았다. 그는 幕府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서는 새로운 政權의 창출을 위해, 지방세력
 의 대표자를 幕僚로 辟召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司馬睿 幕府의
 독특한 구성원리를 보게 된다. 司馬睿 幕府는 府主인 司馬睿와 심정적
 으로 결합한 幕僚들의 집합체라기 보다는 군소 豪族들, 즉 지방세력들
 의 결집체였다고 할 수 있다.

府主와 幕僚의 심정적 결합관계에 의존하는 漢代 幕府의 일반적

구성원리가 魏晉南北朝時代 특히 晉代에 이르러 변질되고 있었음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孫楚는...石位의 驃騎軍事に 參하였다...楚는 그 才氣를 믿고 位에 자못 侮易하였다. 처음 다다랐을 때 長揖하면서 이르기를, 天子가 나에게 命하여 卿의 軍事に 參하노라 하니, 이로 인하여 서로 嫌隙하게 되었다. 位는 上套하여, 楚와 吳人 孫世山이 함께 時政을 비난한다 하고, 楚 역시 抗表하여 스스로 변명하니, 여러 해 동안 논의가 분분하여 판결되지 못하였다...武帝는 비록 그 죄를 顯明하지는 않았으나, 少賤한 자가 책망받아야 한다고 하여, 끝내 여러 해 湮廢되었다. 처음에는 參軍이 府主에게 不敬하여, 楚가 位를 가벼이 대하였으나, 드디어 (參軍이 府主에게) 施敬하도록 제도화한 것은 楚로부터 비롯되었다. (《晉書》 58-1539)

위의 기사에 의하면, 晉 武帝時代 이전까지는 參軍이 府主에게 '不敬'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施敬' 하도록 제도화되었다고 한다. 三國時代까지만 해도 府主와 幕僚는 서로 主客의 대등한 입장에서 결합되었으나, 晉代부터는 幕僚가 府主에게 敬禮를 表하게 됨으로서 양자의 제도적 관계는 主從的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종적 상하관계가 강제되면, 그것은 이미 심정적 결합관계라 하기 어렵다. 漢代의 府主와 幕僚를 심정적으로 결합케 하는 과정을 '辟召'라 하고, 辟召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非強制性에 있었다. 그러나 魏晉南北朝時代에 이르면 辟召의 비강제성이 파괴되는 장면과 자주 만나게 된다. 그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蔡克은...대대로 著姓이었는데...東瀛公 騰이 車騎將軍이 되어 河北에 鎮하면서 克으로 從事中郎을 삼고자 하였으나, 반드시 不就할 것을 알고 軍期로써 오도록 하니, 克은 不得已

하였다. (《竹書》 77-2033)

이처럼 幕府의 구성원리가 변질되게 된 까닭은 아마도 晉代 이후 幕府의 성격, 즉 幕僚의 역할이 크게 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漢代에는 幕府가 國政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幕僚에게도 국정을 논의하는 구체적인 기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魏晉南北朝의 幕府, 특히 方鎮將軍의 幕府는 그 군사적 기능에 필요한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幕僚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의 구체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幕僚들은 단지 자신이 갖고 있는 名士로서의 名望을 제공할 뿐이었다. 이처럼 名士의 집합체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魏晉南北朝의 名府는 辟召 고유의 심정적 결합원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名府를 만들고자 하는, 혹은 名府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府主에게는 幕僚의 心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幕僚의 名望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면 晉代 幕府 府主와 幕僚의 사회경제적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우리는 이미 漢代 將軍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幕僚의 그것을 압도하여 幕府의 사회경제적 기초가 대체로 府主側에 의해 제공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나아가서는 漢末부터는 將軍의 사회경제적 역량이 크게 약화되는데 반해 幕僚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幕僚의 사회적 名望과 경제적 힘이 幕府와 府主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징험을 발견한 바도 있다.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징험은 晉代에 이르러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竹書》 등의 사료에서는 晉代의 幕僚들이 幕府나 府主에게 경제적 반대급부를 거의 기대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기사가 자주 발견된다. 많은 幕僚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幕府를 떠나서 지방관이 되기를 자원하였다.

5) 金翰奎, <漢代 幕府體制的 社會經濟적 기초> (《中國學報》 29, 1989) p. 92.

胡母輔之는...太尉掾에 辟召되었으나 모두 不就하고, 家貧하다 하여 繁昌令을 試守할 것을 求하였다...司徒左長史에 累遷하였다가 다시 外出을 求하여 建武將軍 樂安太守가 되었다. (《竹書》 49-1380)

江迥은...征北將軍 蔡謨가 명하여 參軍이 되고 何充이 다시 引하여 驃騎功曹가 되었으나, 家貧하여 試守할 것을 구하여 太末令이 되었다. (《竹書》 83-2171)

幕僚職을 사양하고 지방관직을 자원한 까닭은 말할 필요도 없이 守令이 되어야 致富할 수 있기 때문이다. 致富의 방법은 물론 불법적인 聚斂이었다. 다음의 기사들은 당대 일류의 名士들이 幕僚職을 마다하고 지방관이 되어 不正蓄財하는 모양을 잘 전하고 있다.

司徒 王導가 (王述을) 門地로써 辟召하여 中兵屬을 삼았다...처음 述이 家貧하여 宛陵令을 試할 것을 구하여, 뇌물을 많이 받아 家具를 갖추니 州司에 의해 檢察된 것이 一千三百條에 이르니, 王導가 사람을 시켜 이르기를, 名父之子는 無祿을 걱정하지 않는 법인데 小縣에 加臨하니 심히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竹書》 75-1963)

孫盛은...起家하여 左著作郎이 되었다가 家貧과 親老의 이유로 小邑(의 守令)이 될 것을 구하여 瀏陽令으로 出補하였는데...累遷하여 桓溫의 從事中郎이 되었다...그러나 다시 出하여 長沙太守가 되어 家貧하다는 이유로 資產을 많이 경영하였으나, 部從事가 郡에 이르러 이를 살피고서도 그 高名에 服하여 탄핵하지 않았다. (《竹書》 82-2147)

王述은 東晉 제1의 名族인 琅邪 王氏 출신의 '名父之子'였고 孫盛 역시 '高名'이 높은 名士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불법적 聚斂으로 축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방관을 자원하였다. 물론 반드시 지방관이 되어야 축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幕僚職에 있으면서도, 열

마든지 부정축재할 수 있었다. 특히 소속된 幕府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그 幕僚의 불법적 축재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음의 기사가 이를 전한다.

庾豈는...參東海王越太傅軍事하고 軍諮祭酒로 轉하였다. 당시 越의 府에는 뛰어난 인재가 많았는데,豈는 그 가운데서도...重名이 있어 搢紳들의 추앙을 받았으나, 聚斂積實하여 談者들이 譏弄하였다. (《晉書》 50-1396)

茹千秋는...(琅邪王 道子の)驃騎將軍 諮議參軍이 되어...賣官賣爵하여 累億의 資貨를 모았다. (《晉書》 64-1734)

그러나 名府에 소속된 幕僚들이 불법적 부정축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幕府의 名望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府主에 의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幕僚의 명망을 모은 것이 '府望'이요, 府望이 높아야 名府가 된다. 幕府의 명망을 지키고 높이기 위해서는 幕僚의 명망도 지키고 높여야 한다. 따라서 幕僚가 권력을 이용하여 축재하기 위해서는 幕府를 스스로 떠나서 民과 직접 만나는 지방관이 되는 길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晉代에는 원칙적으로 府主가 幕僚에게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일러준다. 王導가 자기의 故吏인 王述에게 "名父之子는 無祿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나무란 것도 이를 웅변한다.

기본적으로 幕府를 유지시키는 경제적 기초는 國家에서 제공한다. 그것은 漢代나 魏晉南北朝時代나 다름이 없다. 幕僚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俸祿도 국가에서 제공한다. 幕府 산하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경상비용도 국가에서 공급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경비를 넘어서는 부분, 즉 비정상상태에 다른 幕府에 비해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사회경제적 기반은 국가가 아닌, 幕府를 구성하는 당사자들인 府主와

幕僚가 공급해야 할 몫이다. 이와 같은 비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어느 幕府가 보다 강력한 힘을 갖는가에 따라, 그 幕府의 발전 가능성, 즉 霸府로의 발전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 비제도적인 부분을 漢代에는 府主側에서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府主의 사회경제적인 힘이 웅대하였으나, 魏晉南北朝時代에는 오히려 幕僚側에서 부담한 것으로 추량될 수 있다. 그것은 名族과 豪族을 대거 幕僚로 초빙하여 幕府를 名族 豪族의 결집체로 만든 魏晉南北朝 幕府體제의 구성원리로 보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魏晉南北朝時代 幕府의 사회경제적 성격은 府主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幕僚들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幕僚들의 名族 혹은 豪族의 성격으로 인해, 名府와 大府들은 名族과 豪族의 결집체가 되었다. 名族出身 幕僚들의 名望이 모여져 名府가 되고, 豪族出身 幕僚들의 사회경제적 힘이 모여져 大府가 된다. 국가 안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名府가 동시에 가장 강력한 大府가 되면, 곧 霸府가 탄생한다. 그리고 霸府는 새로운 政權을 창출하여, 새로운 정부의 母胎가 된다.

그러면 幕府가 개설된 곳과 幕僚들의 출신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幕僚들의 本籍地나 현 거주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후자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적지란 先代로부터 一家가 함께 살아온 곳으로 사회경제적 힘의 근거지라 할 수 있지만, 魏晉南北朝時代처럼 인구의 이동이 격심했던 때에는 현 거주지와 본적지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당시 본적지의 일반적 분포상황을 개괄한 다음, 당시 幕僚들의 본적지 분포상황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 예로서 <<晉書>> 열전에 보이는 각 立傳人物들의 본적지를 지역별로 분류하고, 동시에 魏晉南北朝時代 최대의 幕府였던 劉裕 幕府 幕僚들의 본적지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6> 《晉書》 列傳 所載 人物과 劉裕 幕僚 本籍地 分布

《晉書》 列傳所載人物 本籍地				劉裕 幕僚 本籍地		
州	郡	計	合計	郡	計	合計
豫州	譙郡	32	17% 112	陳沛	15	22% 31
	陳郡(國)	32		穎川	10	
	穎川	31		譙	5	
	汝南	10		기타	1	
	沛	4			0	
	기타	3				
揚州	廬江	24	14% 87	會稽	5	8% 11
	會稽	20		吳	3	
	吳郡(國)	16		豫章	3	
	丹陽	10		기타	0	
	豫章	5				
	吳興	4				
	기타	8				
徐州	琅邪	32	9% 57	琅邪	19	33% 46
	廣陵	7		東莞	13	
	彭城	6		彭城	7	
	東海	5		東海	5	
	기타	7		기타	2	
兗州	陳留	21	9% 56	高平	7	14% 20
	高平	10		陳留	4	
	泰山	6		泰山	3	
	東郡	5		濟陽	3	
	濟陰	4		濟陰	3	
	기타	10		기타	0	
司州	河東	11	8% 51	河內	4	9% 13
	河內	9		河南	4	
	滎陽	8		滎陽	3	
	平陽	6		기타	0	
	弘農	5				
	기타	12				

《晉書》列傳所載人物 本籍地				劉裕 幕僚 本籍地		
州	郡	計	合計	郡	計	合計
荊州	南陽	19	8% 49	南陽	5	4% 6
	長沙	8		順陽	1	
	江夏	4		기타	0	
	襄陽	3				
	武陵	3				
	기타	12				
并州	太原	27	7% 47	太原	2	1% 2
	新興	9		기타	0	
	上黨	7				
	其他	4				
秦州	略陽	13	6% 37			0
	隴西	12				
	南安	6				
	天水	4				
	기타	2				
幽州	昌黎	14	5% 33			0
	范陽	9				
	代	3				
	기타	7				
冀州	渤海	8	5% 31			0
	平原	7				
	中山	5				
	安平	5				
	기타	6				
雍州	安定	14	4% 27	北地	2	0
	京兆	7		기타	0	
	北地	3				
	기타	3				

《晉書》列傳所載人物 本籍地				劉裕 幕僚 本籍地		
州	郡	計	合計	郡	計	合計
益州	巴西	13	3%			0
	蜀	3				
	其他	3				
青州	東萊	5	3%	平昌	6	8%
	濟南	4		北海	5	
	樂安	3		其他	0	
	其他	6			11	
涼州	敦煌	11	3%			0
	其他	3	14			
其他			4			0
641				140		

위의 表를 보면, 《晉書》에 立傳된 인물들(이들은 대체도 당시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저명인사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단 여기서 宗室은 제외하였다)의 본적지는 대체로 豫州와 揚州에 많이 집중되었으나 徐州 兗州 司州 荊州 并州 秦州 幽州 冀州 雍州 益州 青州 涼州 등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한명의 인사도 발견되지 않는 곳은 廣州와 交州 寧州 등 西南 僻地 밖에 없다. 그러나 劉裕 幕府 幕僚들의 본적지 분포상황은 이와 상당히 다르다. 劉裕의 幕僚들은 약 70%가 徐州와 豫州 兗州 등 3개 州에 집중되어 있다. 《晉書》列傳에 입전된 인물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徐州와 青州 출신자는 크게 많아졌는데 반해 揚州와 荊州 출신자들은 크게 줄어들었다. 并州와 冀州 幽州 雍州 秦州 涼州 益州 등의 출신자가 거의 全無하다시피 한 것도 특이하다. 요컨대, 晉代의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劉裕 幕僚들의

본적지는 대부분 靑州와 徐州 北部, 兗州 南部, 豫州 北部 및 司州를 잇는 한 線上에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왜 劉裕의 幕府에서는 이 제한된 지역의 출신자들만을 발견하게 되는가? 이 문제는 아마도 劉裕 幕府의 지역적 특수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表4-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劉裕는 下邳太守와 彭城內史, 徐州刺史, 靑州刺史, 豫州刺史 혹은 兗州刺史 등을 역임하였고 그의 군사적 都督權도 주로 徐州 靑州 兗州 豫州 등에서 행사되었다. 요컨대 이 지역은 劉裕 幕府의 주된 활동이 이루어진 곳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東晉의 군사권은 揚子江 中上流 즉 荊州 江州 지역과 揚子江 下流 즉 揚州 지역, 그리고 북부의 徐州지역으로 三分되어 서로 힘항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주로 徐州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廣陵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幕府를 ‘北府’라고 불렀다. 劉裕는 바로 이 北府 출신으로, 北府를 토대로 성장하고 北府의 병권을 장악하여 마침내 霸府를 이루었다. 원래 北府에는 그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북방에서 南遷해 온 人士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으며, 劉裕 幕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⁶⁾ 또한 劉裕의 주요 군사적 활동이 黃河 유역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현 거주자들 조차도 劉裕 幕府에 동참할 수 있었다. 劉裕의 幕僚 가운데 黃河 以南 淮水 以北 지역 출신자가 대부분을 점한 까닭도 劉裕 幕府의 특수한 활동 범위와 깊이 관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幕府의 설치지역과 幕僚의 출신지역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魏晉南北朝時代의 경우,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특히 揚子江 中下流 즉 荊州와 江州에 幕府가 개설될 경우, 이 지역의 人士가 幕府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그 까닭은, <表 5>에

6) 牟元珪, <東晉北府兵概論> (《軍事歷史研究》) pp.129-32

서 보듯이, 원래 이 지역은 名士의 산출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名府가 되려면 名族 출신의 名士를 幕僚로 초빙해야 하는데, 荊州나 江州는 名族의 근거지나 名士의 產地가 아니기 때문에, 揚子江 中上流의 幕府 즉 '西府'의 府主는 부득이 北方에서 南遷해 온 名族出身의 名士나 揚子江 下流域의 호족 출신 명사들을 幕僚로 초빙할 수 밖에 없다. <表 3>에서 보듯이 王敦이나 桓溫 등 揚子江 中上流域을 장악하였던 方鎮將軍들의 幕府에는 주로 華北에서 南遷해 온 명족출신의 명사들이 많이 초빙되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들과는 달리, 劉裕의 幕府는 名族의 產地에 인접하거나 혹은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 幕府의 위치와 幕僚의 출신지가 비교적 근접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魏晉南北朝 幕府의 在地性과 관련하여, 대체로 두가지의 유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劉裕의 幕府처럼 幕府가 활동하는 지역 안이나 인접한 지역 출신의 幕僚로서 구성되는 유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王敦이나 桓溫의 幕府처럼, 幕府의 개설지역과는 별다른 관련없이, 南遷해 온 북방의 名族 출신이나 강남에서 오랫동안 세력을 확장해 온 豪族 출신의 幕僚들로 이루어진 유형이다. 前者와 같은 유형은 北朝 高歡의 幕府에서도 볼 수 있다. <表 5-나>에서도 볼 수 있듯이, 高歡의 幕僚들은 대부분 冀州, 并州, 幽州 등 3개 州의 출신이며, 그 이외의 지역 출신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後者의 유형은 劉宋의 諸侯王 幕府에서도 발견된다. 宋朝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武陵王 駿, 始興王 潛, 兗陵王 誕, 江夏王 義恭, 彭城王 義康, 衡陽王 義季, 南焦王 義宣 등의 幕府는 모두 幕府의 개설 혹은 활동지역과는 별로 관계없이 徐州 兗州 豫州 등지에서 南遷해 온 名族 출신과 揚州 東部の 豪族 출신 幕僚들로 주로 구성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魏晉南北朝의 名府 大府들은 두 가지의 힘에 의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幕府가 개설되어 활동한 지역에서 직접 초빙된 幕僚들의 직접적 지원, 즉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幕僚 개개인의 名望과 사회적 영향력이 총집됨으로써 작용되는 사회심리적 지원이다. 劉裕나 高歡처럼 府主 자신이 별다른 사회경제적 배경 없이 오로지 군사적 과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성장하려 할 경우에는 주로 幕僚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과 실무적 기능에 의존하려 할 것이고, 東晉의 王氏 桓氏 謝氏 등의 명족이나 南朝의 諸侯王들 같은 府主처럼 스스로 강력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주로 幕僚들의 名望에 의존하여 자신의 幕府를 名府로 발전시키려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府主와 幕僚가 심정적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지만, 후자의 경우는 양자가 굳이 심정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필요성은 적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이든, 魏晉南北朝의 幕府가 幕僚의 名族 혹은 豪族으로서의 사회경제적 힘에 의존하고 있었음은 다를 바 없다.

V. 結 言

지금까지 우리는 魏晉南北朝時代 幕府體制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 名府 혹은 大府의 府主들과 幕僚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가를 살피고, 나아가서는 이들 양자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魏晉南北朝時代 名府와 大府의 府主는 대부분 名族을 대표하는 지방세력이었고 그 幕僚들도 대부분 名族 혹은 豪族 출신의 名士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당시 名府 혹은 大府의 역할은 名族 출신 名士들의 名望과 豪族 출신 名士들의

힘을 결집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漢代의 幕府는 輔政將軍의 幕府였지만, 魏晉南北朝의 幕府는 輔政將軍의 幕府와 方鎮將軍의 幕府 등 두가지가 함께 병존하였다. 魏晉南北朝의 경우, 輔政將軍 幕府 府上의 사회경제적 성격이나 方鎮將軍 幕府 府上의 그것이나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幕僚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까닭은 아마도 輔政將軍 幕府와 方鎮將軍 幕府의 성격이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의 方鎮將軍은 출진한 지역을 대표하는 '地方勢力'이었지만, 輔政將軍도 京師 지방의 여러 세력을 대표하는 '지방세력'이었다.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方鎮將軍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반해 輔政將軍은 중앙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 뿐이다. 이들 지방세력들은 幕府를 통해 서로 경쟁하였으며, 경쟁의 방법은 자신의 幕府를 名府化하는 것이었다. 名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名士를 幕僚로 많이 초빙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名士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名族 출신이라는 가문적 배경이 있어야 하고, 文學的 소양이 뛰어나야 하며, 인간적 자질이 고상하여 향리의 칭송을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名族의 출신이라는 조건이 중시되어, 名府의 幕僚들 가운데는 名族의 子弟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魏晉南北朝의 方鎮將軍들은 이러한 성격의 名士들을 대거 幕僚로 辟召함으로써, 명사들의 名望을 결집하여 자신의 幕府를 名府로 만들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세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지방의 豪族이나 그 자제들을 幕僚로 초빙하여 지방세력을 자신의 幕府로 결집함으로써, 幕府를 大府로 성장시키고, 나아가서는 霸府로까지 발전시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었다. 이점에 있어서도, 魏晉南北朝時代의 輔政將軍 幕府는 方鎮將軍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魏晉南北朝의 親王 등 諸侯王의 실체에 관한 것이다. 漢代의 輔政將軍은 대부분 外戚이었다. 그러나 魏晉南北朝 名府와 大府의 府主들 가운데는 名族出身의 지방세력들 뿐만 아니라 諸侯王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 諸侯王도 지방세력인가? '지방세력'이란 말이 중앙정부의 권력과 대응하는 힘을 가리킨다면, 魏晉南北朝의 諸侯王도 지방세력의 한 부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西晉의 이른바 八王들이 중앙정부에 대항하였음은 새삼 거론한 필요도 없고, 南朝의 수많은 諸侯王들이 중앙정부에 저항하였거나 혹은 저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앙정부와 심각한 밀항관계 혹은 긴장관계에 놓여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모두 명망높은 名府나 막강한 大府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곧 魏晉南北朝의 諸侯王이 '지방세력'으로 이해되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된다. 이들이 皇帝의 親子인가 親弟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幕府가 어떠한 성격의 힘으로 구성되었는가 중요하다. 이들의 幕府가 名府이고 大府인 이상, 이들의 幕僚들은 대부분 名族이나 豪族 출신 혹은 그 자체였으므로, 이들의 幕府는 名族 혹은 豪族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았다. 諸侯王의 幕僚들이 名族이나 豪族으로 구성되면, 당연히 그 幕府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자립성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서 중앙정부와 諸侯王 幕府 사이에 긴장이 형성되고 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魏晉南北朝 幕府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는 府主의 입장보다는 幕僚의 사회경제적 성격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漢代에는 輔政將軍 幕府의 府主가 外戚이라는 사실이 그 幕府의 성격과 역사적 역할을 결정하였으나, 魏晉南北朝의 幕府는 府主가 諸侯王인가, 혹은 名族인가

寒門인가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漢代 幕府體制的 경우, 府主의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魏晉南北朝의 경우는 오히려 幕僚들의 총합적인 힘에 더 많이 의존한 것으로 이해된다. 府主가 누구인가 하는 점도 물론 중요하였겠지만, 그보다는 그의 幕府가 名府인가 大府인가, 즉 그가 초집한 幕僚들 가운데 얼마나 높은 수준의 명망을 갖고 있는 名士들과 얼마나 강력한 사회경제적 힘을 가진 지방세력의 대표자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었는가 하는 점이 보다 중시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魏晉南北朝時代에 이르러서는 府主와 幕僚의 관계도 다소 변질되었다. 漢代에는 將軍의 自律性에 기초한 辟召라는 방법에 의해 幕僚가 초빙되었기 때문에, 府主와 幕僚의 관계는 主客的이고 心情的인 결합관계였다. 그러나 魏晉南北朝時代에 이르러서는 幕僚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幕僚의 名望과 勢力을 결집하는 측면이 더 중시되었기 때문에, 府主에 대한 幕僚의 心服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幕府를 직접 지향한 大府의 경우에는 왕왕 심정적 결합관계가 재현되기도 하였으나, 名府를 지향하는 幕府들은 대부분 辟召의 본래적 정신이 상당히 희석되었다.

그러나 魏晉南北朝의 幕府가 지방세력의 제도적 표현이었다고 해서, 名府나 大府의 구성원들이 幕府의 지리적 위치와 직접 관련되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名族들은 本籍地와 현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名府의 幕僚들도 在地性을 크게 잃고 있었다. 名府가 필요로 한 것은 幕僚의 現地勢力이 아니라 名族의 사회심리적 응집력이었다. 그러나 幕府를 지향한 大府들은 현실의 물리적 힘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幕僚의 名望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지세력도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大府의 幕僚 가운데는 幕府가 개설된 지역과 인접한 곳이나 幕府의 활동지역에 근거지

를 둔 豪族들이 다수 포함되기도 했다. 이처럼 魏晉南北朝時代의 名府 혹은 大府들은 在地性이 약화된 名族과 在地性이 유지된 豪族들을 함께 결집함으로써, 독특한 성격의 지방세력을 제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